

시흥 서안산IC 접속부 개량공사구간 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김아관·이동성
서봉수·이민식

2001

畿 甸 文 化 財 研 究 院
韓 國 道 路 公 社 中 部 地 域 本 部

차 례

I. 머 리 말	7
II. 주변환경	8
1. 자연 · 지리적 환경	8
2. 고고 · 역사적 환경	11
III. 조사방법	14
IV. 조사내용	17
1. I 지점	17
2. II 지점	19
3. 수습유물	26
1) 기와류	26
2) 토기류	29
3) 자기류	35
V. 맺 음 말	39
사 진	42

도 면 차 례

도면 1. 조사지역 위치도(1:50,000)	9
도면 2. 조사지역 위치도(1:5,000)	10
도면 3. 주변지역 유적 분포도(구석기 · 건물지)	12
도면 4. 조사 구획도	15
도면 5. I 지점 탐색구덩 층위도	18
도면 6. II 지점 1트렌치 평 · 단면도	21
도면 7. II 지점 2트렌치 평 · 단면도	22
도면 8. II 지점 4트렌치 평 · 단면도	23
도면 9. II 지점 6트렌치 평 · 단면도	24
도면 10. II 지점 9트렌치 평 · 단면도	25
도면 11. II 지점 출토 무문 암키와①~③	30
도면 12. II 지점 출토 무문 암키와①	31
II 지점 출토 방곽문계 암키와②, ③	31
II 지점 출토 가로선문 암키와④	31
II 지점 출토 사선문 암키와⑤	31
II 지점 출토 어골문 암키와⑥	31
도면 13. II 지점 출토 어골문 암키와①, ②	32
II 지점 출토 복합문 암키와③, ④	32
도면 14. II 지점 출토 복합문 암키와①~④	33
도면 15. II 지점 출토 토기 저부편①	34
II 지점 출토 토기 동체부편②~⑥	34
도면 16. II 지점 출토 백자 발편①	37
II 지점 출토 백자 대접편②	37
II 지점 출토 백자편③	37
II 지점 출토 백자 초벌편④	37
II 지점 출토 백자편⑤	37
II 지점 출토 백자접시편⑥	37
도면 17. II 지점 출토 백자편①	38

Ⅱ 지점 출토 청자편②~④	38
Ⅱ 지점 출토 갑발편⑤	38

사 진 차 례

사진 1. 조사지역 전경	42
사진 2. I 지점 전경	42
사진 3. I 지점 12트렌치 전경	43
사진 4. I 지점 토양쌓기층 노출 모습	43
사진 5. I 지점 탐색구덩 지층 자른면	44
사진 6. I 지점 토양쌓기층 깨진 돌 출토 모습	44
사진 7. I 지점 출토 몸돌(추정)	45
사진 8. I 지점 출토 격지(추정)	45
사진 9. Ⅱ 지점 전경	46
사진 10. Ⅱ 지점 1트렌치 전경	46
사진 11. Ⅱ 지점 2트렌치 전경	47
사진 12. Ⅱ 지점 2트렌치 유구 노출 모습	47
사진 13. Ⅱ 지점 3트렌치 전경	48
사진 14. Ⅱ 지점 4트렌치 전경	48
사진 15. Ⅱ 지점 4트렌치 유구 노출 모습	49
사진 16. Ⅱ 지점 5트렌치 전경	49
사진 17. Ⅱ 지점 6트렌치 전경	50
사진 18. Ⅱ 지점 6트렌치 유구 노출 모습	50
사진 19. Ⅱ 지점 9트렌치 전경	51
사진 20. Ⅱ 지점 9트렌치 민묘 노출 모습	51
사진 21. Ⅱ 지점 출토 무문 암키와	52
사진 22. Ⅱ 지점 출토 무문 암키와	52
사진 23. Ⅱ 지점 출토 무문 암키와	53
사진 24. Ⅱ 지점 출토 무문 암키와	53

사진 25. Ⅱ 지점 출토 방곽문계 암키와	54
사진 26. Ⅱ 지점 출토 방곽문계 암키와	54
사진 27. Ⅱ 지점 출토 가로선문 암키와	55
사진 28. Ⅱ 지점 출토 사선문 암키와	55
사진 29. Ⅱ 지점 출토 어골문 암키와	56
사진 30. Ⅱ 지점 출토 어골문 암키와	56
사진 31. Ⅱ 지점 출토 어골문 암키와	57
사진 32. Ⅱ 지점 출토 복합문 암키와	57
사진 33. Ⅱ 지점 출토 복합문 암키와	58
사진 34. Ⅱ 지점 출토 복합문 암키와	58
사진 35. Ⅱ 지점 출토 복합문 암키와	59
사진 36. Ⅱ 지점 출토 복합문 암키와	59
사진 37. Ⅱ 지점 출토 복합문 암키와	60
사진 38. Ⅱ 지점 출토 동이	60
사진 39. Ⅱ 지점 출토 토기 저부편	61
사진 40. Ⅱ 지점 출토 토기 동체부편	61
사진 41. Ⅱ 지점 출토 토기 동체부편	62
사진 42. Ⅱ 지점 출토 토기 동체부편	62
사진 43. Ⅱ 지점 출토 토기 동체부편	63
사진 44. Ⅱ 지점 출토 토기 동체부편	63
사진 45. Ⅱ 지점 출토 백자 발편	64
사진 46. Ⅱ 지점 출토 백자 대접편	64
사진 47. Ⅱ 지점 출토 백자편	65
사진 48. Ⅱ 지점 출토 백자 초벌편	65
사진 49. Ⅱ 지점 출토 백자편	66
사진 50. Ⅱ 지점 출토 백자접시편	66
사진 51. Ⅱ 지점 출토 백자편	67
사진 52. Ⅱ 지점 출토 청자편(內面)①~③	67
사진 53. Ⅱ 지점 출토 청자편(外面)①~③	68
사진 54. Ⅱ 지점 출토 갑발편	68

I. 머 리 말

서안산IC 접속부 개량공사구간 내 문화유적 시굴조사는 한국도로공사 중부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서안산IC 접속부 개량공사로 인해 현재 지형의 형질변경이 불가피하였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공사구간 내 문화유적의 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발굴조사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에 앞서 본 연구원은 1998년 8월 시흥시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시흥시 광역 정밀 지표조사’ 당시 본 조사지역에서 건물지 유적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이 지역이 거모동 뒷골유적의 남쪽 부분에 해당됨을 보고하였다. 뒷골유적은 지표조사 결과, 지표 상에서 조선시대로 판단되는 기와편·백자편 및 고려시대의 청자편·토기편 등 다량의 유물이 수습되어 이곳을 중심으로 한 일정 규모의 건물지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¹⁾

그 후 2000년 2월에 현장을 답사하는 도중, 조사지역이 한국도로공사의 서안산IC 접속부 개량공사 부지임을 확인하였으며, 사업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인 사실도 알게 되었다. 사업지역이 비록 뒷골유적의 남쪽 부분에 해당되지만 많은 유물이 수습되어 건물지의 존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지역이라 긴급 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1596-4번지 일원(도면 1, 사진 1)으로 조사는 총 공사면적 30,000평 중 약 5,000평 정도의 범위에 대해 이루어졌다.(도면 2) 현장 조사기간은 2000년 6월 23일 ~ 2001년 2월 3일까지인데, 용지 매입과 농작물 보상문제 등으로 일시 철수하였다가 재착수하였고, 조사기간 중에도 혹한과 폭설로 일정이 지연되었다.

1차 시굴조사는 당초 2000년 6월 23일에 착수하였으나 용지 매입과 농작물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000년 7월 10일에 일시 철수하였다가 11월 30일에 다시 착수하였다. 조사는 용지매입과 토지 소유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한 곳을 제외하고 조사의 진행에 큰 차질이 없었던 I 지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2차 시굴조사는 2000년 1월 3일부터 2001년 2월 3일까지 II 지점에 중점을 두어 이루어졌으며, 기 조사된 I 지점에 대해서는 탐색구덩(Test pit)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지층관계와 유물의 출토 유무를 규명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금번 조사를 위한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 사 단 장 : 장 경 호 (기전문화재연구원장)

자 문 위 원 : 故 한 병 삼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문화재위원회 6분과위원장)

김 동 현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동국대학교 교수)

배 기 동 (한양대학교 박물관장)

김 홍 식 (명지대학교 교수)

이 남 규 (한신대학교 교수)

1) 기전문화재연구원·시흥시, 2000,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13~115쪽.

책임조사원 : 김 성 태 (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실장)
 조 사 원 : 김 아 관 (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이 동 성 (기전문화재연구원 조사원)
 서 봉 수 (기전문화재연구원 조사원)
 이 민 식 (전 기전문화재연구원 조사원, 현 여주군사편찬위원)
 이 창 원 (기전문화재연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 이 충 렬 (한신대학교 국사학과 4년) 외

이외에 이윤용(단국대학교 사학과 졸업), 이용우(단국대학교 역사학과 졸업), 임민철, 임여진, 이운주(단국대학교 역사학과 4년), 이권재(단국대학교 역사학과 3년) · 유성용(단국대학교 4년), 이혜숙(건국대학교 4년), 이강호(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4년), 최한진(서울시립대학교 3년), 정재익(성균관대학교 역사교육과 2년) 등이 혹한의 날씨에서도 현장작업에 임해주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중부지역본부 김용준 과장, 정승운 대리, 백종철 대리, 시흥시청 고형근 계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남광토건 박창순 소장과 이신평 과장은 현장작업에서 생기는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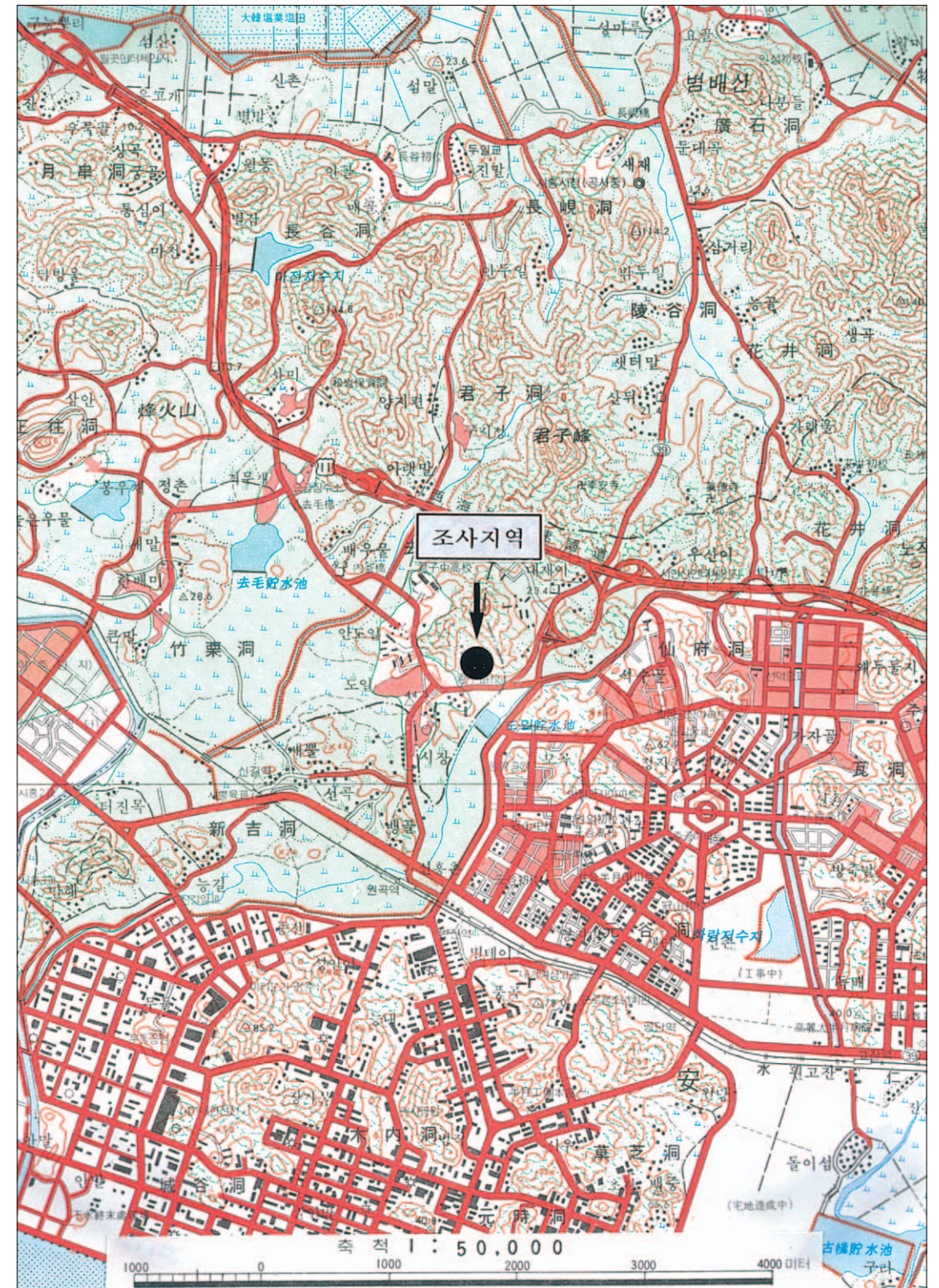
현장조사는 이동성, 이민식이 주도하였고, 보고서 작성은 이동성이 하였고 기와를 서봉수가, 현장사진은 이충렬, 유물사진은 이동성, 유구와 유물의 실측 및 제도를 이윤용, 임여진, 유지는(대전보건대학 박물관학과 졸업)이 담당하였다. 이를 이동성이 편집한 후 김아관과 김성태가 수정하였으며 장경호가 최종 가필하였다.

Ⅱ. 주변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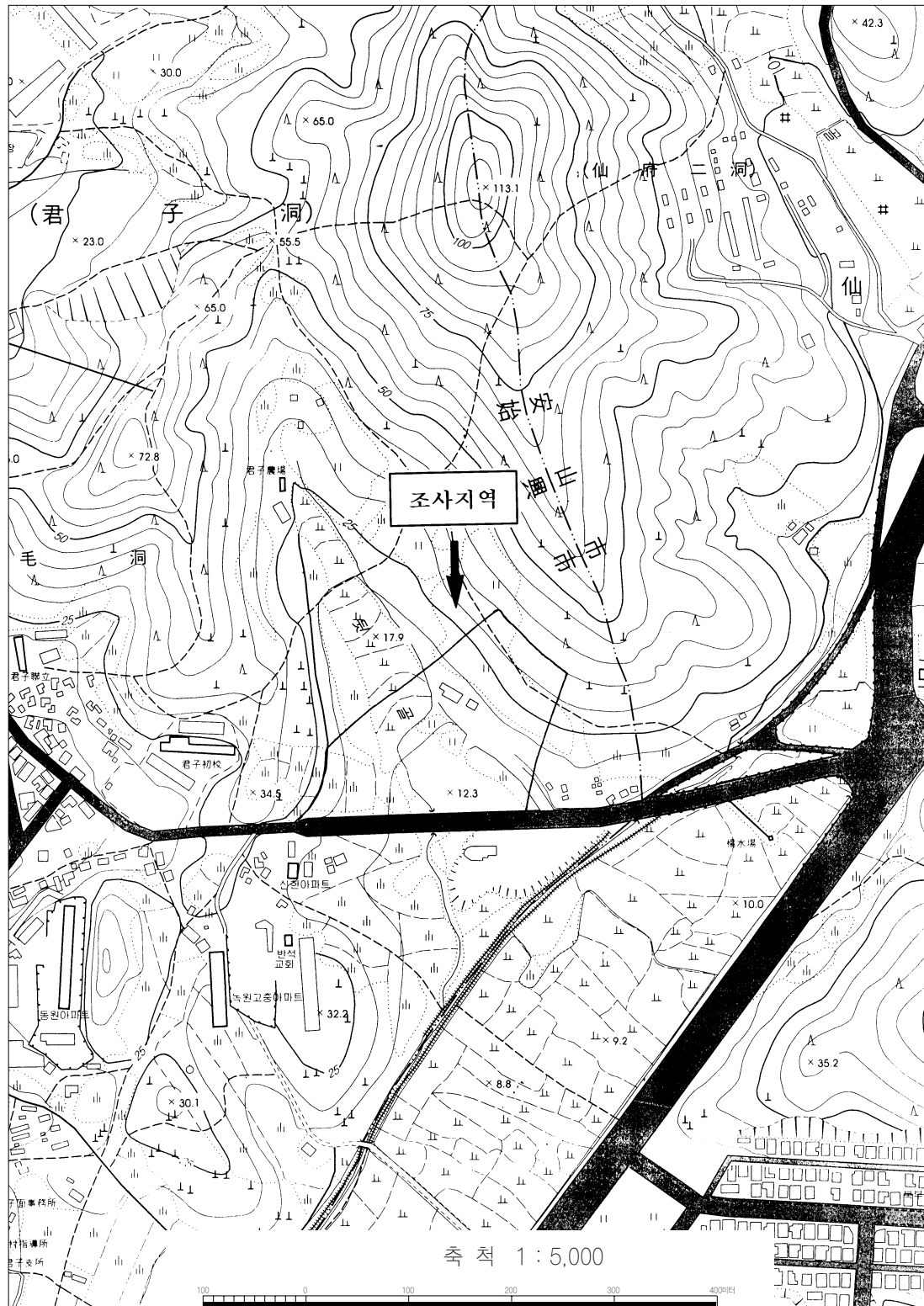
1. 자연·지리적 환경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1596-4번지 일대이다. 유적은 君子峰(196m)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린 능선을 따라 유적 북동쪽에 해발 113.1m의 독립성 구릉산지가 존재하고 이를 따라 동서로 주봉에서 갈라진 낮은 구릉성 산지가 이어지는 남동쪽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다.(도면 2, 사진 1) 또한 서쪽으로 이어진 해발 70m 정도의 얇은 봉우리 동쪽 능선지역과 논으로 경작되는 지점까지 포함한다. 한편 주봉 정상부에는 현재 군부대 및 시흥시 정수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일대에서도 지표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집자리가 확인되어 이미 보존신청을 한 바 있다.²⁾

2) 기전문화재연구원 · 시흥시, 2000, 『위 책』, 105~108쪽.



도면 1. 조사지역 위치도(1:50,000)



도면 2. 조사지역 위치도(1:5,000)

거모동 북쪽은 군자봉의 얇은 구릉을 따라 군자동, 장현동, 장곡동, 능곡동, 월곶동이 있고, 서쪽은 바다와 연결한 정왕동과 논으로 경작되는 저평한 죽울동, 신길동이, 동남쪽은 화정동과 안산시가 자리 잡고 있다. 위도상으로는 북위 37° 20' 25" ~ 34", 동경 126° 47' 26" ~ 35"에 해당한다.

시흥시의 지형은 광주산맥의 서남부에 해당하며 동남부의 秀巖峰(396m) 주변지역에만 400m 내외의 산지가 분포할 뿐, 그 밖의 대부분 지역은 200m 내외의 낮은 구릉지와 그 사이에 비교적 넓은 침식 저지대가 발달해 있다. 동쪽에는 안양천이 흐르고, 서쪽에는 신천천·은행천 등의 소규모 하천이 서해로 유입하고 있다. 구릉지 사이의 침식저지대로 이루어진 침식평야지대와 해저퇴적물이 쌓여 형성된 서해의 퇴적평야지대에서는 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큰 간만의 차이로 발달된 서해안의 일부 간석지에서는 현재도 염전이 행해지고 있다.³⁾

시흥시의 지질은 花崗巖·花崗片麻巖·片巖·石英斑巖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질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안양시 서쪽에 평균 5km의 폭을 가진 시생대의 결정편마암계가 帶狀으로 남북방향으로 뻗어 있고, 그외 지역은 대개 화강편마암계에 속하는 암석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시흥시의 지반도 경기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편마암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화강암·석영반암 등이 여러 곳에서 지반을 뚫고 노출되어 상당한 넓이를 차지한다. 토양은 노출된 화강암류나 편마암류를 모암으로 하는 사질토양 또는 壤土의 토양이 널리 분포한다.

시흥시의 기후는 한반도 남부의 溫暖帶氣候에서 북부의 대륙성기후로 옮겨가는 漸移的氣候이며, 한반도의 중서부 해안지대에 위치한 관계로 같은 위도상의 내륙지방보다는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여 인간이 거주하기에 비교적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2. 고고·역사적 환경

한반도에 최초로 인류가 산 것은 70만년 전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이래로 1만년 전까지 시흥에도 구석기인들이 살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시흥시에서 조사된 구석기시대 유적은 6개소로 모두 지표조사시 발견된 곳들이다.⁴⁾ 지표 수습된 유물들을 살펴보면 목감동-여러면 석기, 매화동-몸돌, 도창동1-몸돌석기, 도창동2-여러면 석기, 월곶동-여러면 석기, 계수동-몸돌 등 모두 육안으로 찾기 쉬운 석영질 큰석기들이 대부분이다. 차후 정밀시굴조사 혹은 발굴조사가 이어진다면 해안 도서지방인 영종도 송산⁵⁾, 인천 삼목도⁶⁾, 강화도 하점면 장정리⁷⁾, 화성군 및 평택지역⁸⁾ 등과 최근 내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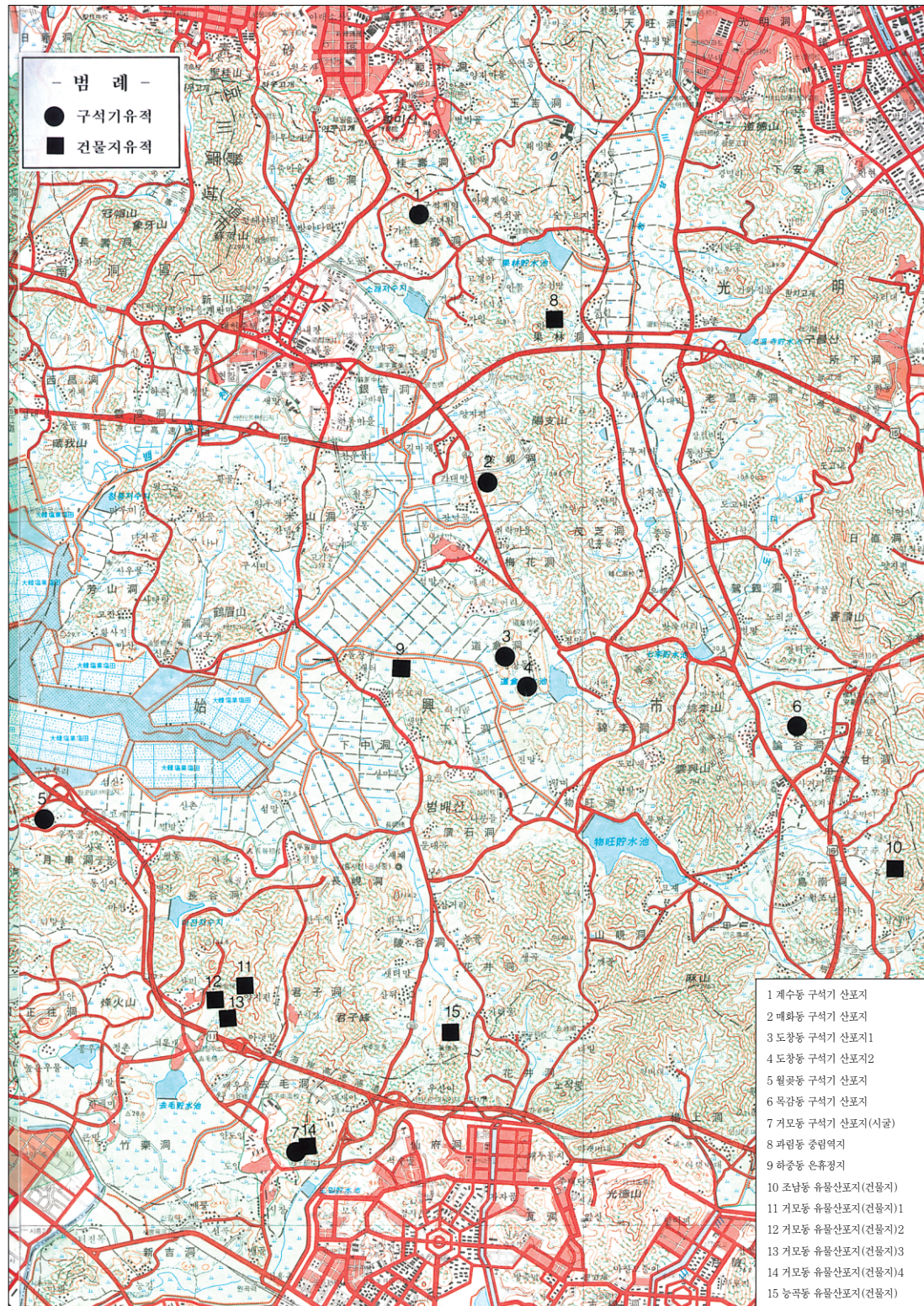
3) 조사지역의 북쪽에 해당하는 매화동 일대에서는 호조별 간척사업이 있기 전까지 바닷물이 드나들고 있었으며, 갯벌이 형성되어 있었다. 현재 이 지역은 간척사업으로 염전과 농지로 개량되어 사용되고 있다.

4) 이번 시굴조사에서 거모동 1지점은 구석기시대 토양폐기층이 확인되었으나 좁은 범위에서 시굴이 이루어져 유물 출토 빈도와 분포범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차후 조사결과에 따라 유적의 유무가 결정될 것이다.

5)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인천광역시립박물관, 1996, 『영종도 송산선사유적』, 99쪽.

6)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인천광역시립박물관, 1996, 『위 책』, 37쪽.

7) 이선근, 1997, 『江華島學術調查報告書』5, 동국대 강화도학술조사단.



도면 3. 주변지역 유적 분포도(구석기·건물지)

방에서 보고된 포천군⁹⁾·연천군¹⁰⁾·광주군¹¹⁾에서의 유적들과 상호 비교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도면 3)

후빙기로 접어들면서 따뜻해진 기후와 함께 신석기시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데 시흥지방이 면하고 있는 서해안은 많은 신석기시대 패총유적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석기시대 패총유적은 오이도, 월곶 등지에서 조사된 예가 있었으나 현재 오이도와 옥구도가 매립에 의해 육지가 되면서 과거의 해안선이 사라지게 되어 많은 신석기시대 패총이 파괴되거나 묻히게 되었다. 보고된 유적으로는 오이도와 옥구도가 위치한 정왕동에서 6개소의 유적이 알려져 있다.¹²⁾

청동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은 비교적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크게 분묘유적인 고인돌¹³⁾과 주거유적이 대부분이며 그 외에 유물산포지 18곳¹⁴⁾이 조사되었다. 이런 분포 현황은 인근지역인 부천·안양·안산·광명 등지의 유적조사 결과와 비교연구하면 이 지역의 청동기시대 문화연구가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흥시를 포함한 한강 하류지역은 기원전에는 辰國과 삼한시대에는 馬韓이 위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해당 시대의 고고학적 유적이나 유물이 보고된 사례는 아직 없다. 그리고 馬韓 54個國 가운데 10여 개 國이 경기지역에 비정되고 있지만 시흥시에 비정되는 馬韓小國名도 없다. 그러나 조남동·계수동·군자동·금이동 등에 지석묘가 축조된 점을 감안해 보면 시흥지역에도 청동기시대 이래로 소규모의 政治體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시대 초기에는 한성백제의 세력하에 있었으나, 고구려의 장수왕이 이 지역을 점령한 후,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에 栗木郡 仍伐奴縣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신라의 한강유역 점령 후 다시 신라의 수중으로 돌아갔으며, 경덕왕 16년(757년)에는 栗木郡이 栗津郡으로, 仍伐奴縣이 穀壤縣(穀梁縣)으로 改稱되었다.

고려가 건국된 직후인 太祖 13년(940년)에 곡양현은 衿州(또는 鈴州)로 개칭되었다. 한편『高麗史』와『大東地誌』는 衿州가 성종 14년(995년)에 始興으로 개명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서 始興이란 이름이 역사에 처음 등장하게 되었다.

조선이 개국된 이후, 태종 13년(1413년)에 지방제도를 개혁할 때, 衿州는 衿川縣으로 개칭되면서

- 8) 윤내현 외, 1995, 「구석기유적 조사보고」『서해안고속도로 건설구간(안산-안중) 유적발굴조사보고서(2)』,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한국도로공사, 458~465쪽.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경기지방공사, 1999, 『평택 현곡~어연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5쪽.
- 9) 한창균 외, 1998, 「포천군의 선사유적」『포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포천군, 77~88쪽.
- 10) 이선복, 1988, 「新發見 舊石器遺蹟 紹介」『孫寶基博士 停年紀念 考古人類學論叢』, 지식산업사.
- 11) 기전문화재연구원·광주군, 2000,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57~419쪽.
- 12) 기전문화재연구원·시흥시, 2000, 『앞 책』.
- 13) 시흥시·한양대학교 박물관, 1999, 『始興市 桂壽洞 支石墓 發掘調査 報告書』, 17~21쪽.
경기도기념물 제103호로 지정된 탁자식 고인돌인 조남동 고인돌 이외에 군자동 개석식고인돌, 금이동 바둑판식 고인돌 1기씩이 조사되었고, 계수동에서는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한 계수동 고인돌 이외에 바둑판식 혹은 개석식 고인돌에 해당하는 작은 규모의 9기가 조사되었다.
- 14) 기전문화재연구원·시흥시, 2000, 『앞 책』, 415~419쪽.

경기도에 隸屬되었다. 이후 통합과 분리를 거쳐 正祖19년(1795년)에 始興縣이 되었다. 고려·조선시대의 유적으로는 건물지와 유물 산포지가 알려져 있다.(도면 3)

근대에 들어와서는 1895년에 지방관제 개혁으로 始興縣이 仁川府 始興郡으로 개칭되었다가 1896년에 다시 경기도에 편입되었다. 이후 1973년에 始興郡의 安養邑이 安養市로 승격되면서 始興郡과 분리되는 대신에 부천군의 소래면이 시흥군에 편입되었다. 1989년에는 군포읍과 의왕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분리되었다.¹⁵⁾

Ⅲ. 조사방법

조사는 편의상 조사 지역을 크게 두 개의 지점으로 나누어 서측 능선 지역을 I 지점, 그리고 동측 능선 지역을 II 지점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I 지점은 대부분 낮은 구릉의 산사면으로 조사 전에는 주로 밭으로 경작되고 있었으며, 커다란 암반이나 나무같은 장애물은 없었다. 따라서 조사구역을 한번 20m 또는 10m의 장방형 그리드를 구획한 뒤 그리드 사이에 폭 1m의 독을 남겼다. 또한 각각의 그리드마다 서에서 동으로 2×18m 또는 2×8m 크기의 시굴 트렌치를 기본적으로 설정하였으며 지형에 따라 트렌치 길이를 조정하였다.(도면 4, 사진 2)

시굴조사는 총 20개의 트렌치를 설정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굴토하였는데, 조사지역 전체에 걸쳐 지표하 30~50cm 지점에서 고토양이 확인되어, 고토양 상층까지만 굴토한 후 고려~조선시대 유구의 범위와 유물의 출토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후 동일 트렌치내에서 고토양층 내부를 조사하여 지층관계와 구석기 출토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I·II 지점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구석기의 출토 여부와 범위 산정을 시도하였지만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조사 대상지역 내에 퇴적층이 두꺼운 트렌치를 선정하여 탐색구덩을 기반암까지 파내려가면서 층위와 구석기의 출토 여부를 확인하였다.

II 지점은 단이 저있는 2곳을 기준으로 크게 3개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단이 지는 곳(계곡 쪽)은 경사가 완만한 편이라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을 통합하여 트렌치 7개를 설치하였고, 두 번째 단이 지는 곳(구릉 정상부 쪽)은 동쪽 능선 정상부와 서쪽 아래쪽으로 경사가 심해 트렌치 4개로 구분하여 설치하였다.(도면 4, 사진 9)

트렌치는 모두 11개를 설치하였는데, 2×8m 크기로 6개, 2×10m 크기로 1개, 2×12m 크기로 2개, 2×15m 크기로 2개를 설치하였다. 모든 트렌치에서 기와편·토기편·자기편 등이 출토되어 유구의 확인에 중점을 두어 조사에 임하였다.

15) 시흥시·한양대학교 박물관, 1999, 『앞 책』, 15쪽.

Ⅳ. 조사내용

1. I 지점

시굴조사는 총 20개의 트렌치를 설치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굴토하였다.(사진 2) 조사지역 전체에서 제4기층이 노출된 고토양층까지만 굴토하여 유물의 출토 여부와 유구의 확인을 먼저 하고(사진 3·4), 고토양층에 대한 지층관계와 유물출토 여부는 2차 시굴조사에서 탐색구덩을 설치하여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층위는 1층이 표토층(경작층)으로 15~20cm 두께이며, 일부 층이 얇은 곳은 2층인 열은 갈색찰흙층까지 침식되었다. 2층은 열은 갈색 찰흙층으로 5~30cm 두께이며, 부분적으로 경작에 의해 많이 침식된 지역이 있으나 비교적 안정된 층위이다. 3층은 토양찌기층으로 붉은 갈색찰흙층에 종상으로 길게 썰기층이 발달하였으며, 70~80cm 두께이다. 4층은 붉은색 찰흙질 자갈층으로 35~55cm 정도의 두께이다. 5층은 짙은 적갈색 찰흙층으로 두께는 50cm 이상이며, 모암이 석영맥암인 깨어진 돌과 작은 조각들이 확인되었으나 풍화작용을 많이 받아 모서리가 닳아 있다. 5층 아래는 기반암으로 구릉 정상부에서 아래쪽으로 경사져 있다.(도면 5, 사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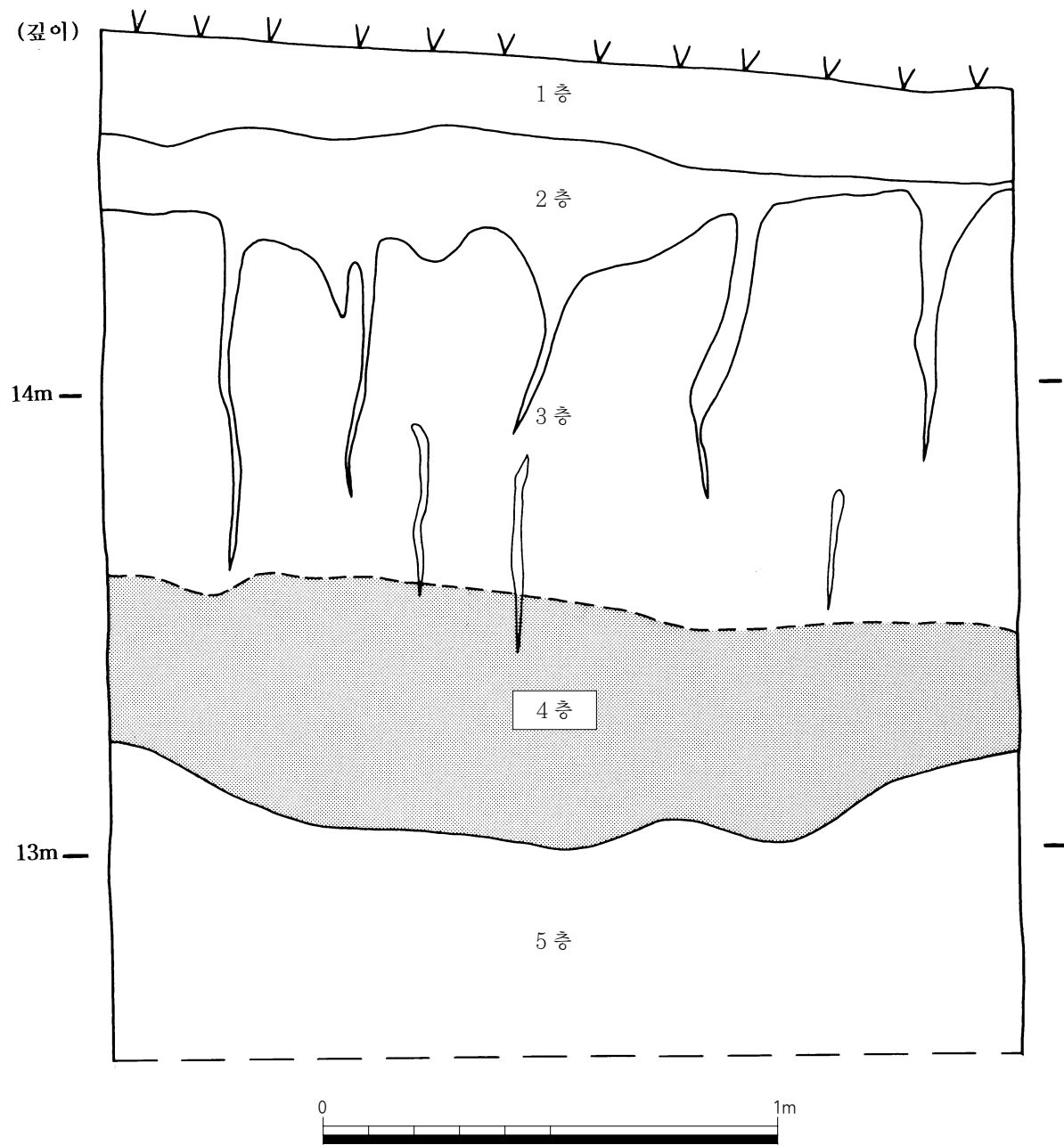
I 지점은 제4기층까지 제토한 후 조사한 결과 건물지와 관련한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제4기 후기 갱신세에 퇴적된 토양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갱신세층이 두꺼운 지점을 선정하여 탐색구덩을 설치한 결과 마모가 심한 깨진 원석과 작은 조각들이 찾아졌으나 이를 인위적으로 조각을 낸 구석기시대의 유물로 볼 것인가는 향후 확장 시굴조사가 이루어진 후 판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시굴된 범위(2×2m)가 좁고 깨어진 돌들이 출토되는 지점이 지표 아래 150cm 이상인 이유로 더 이상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사진 6·7·8)

I 지점은 시굴조사 결과 구석기시대 격지와 몸돌로 추정되는 깨진 돌들이 출토되는 점, 제4기층이 조사지역 전체에 걸쳐 형성되어 있는 점, 출토 유물이 지표하 150cm이하의 좁은 범위에서만 확인되어 그 실체를 규명할 필요성이 있는 점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보면 서해안지방에서 지표조사가 많은 유물이 찾아졌으나 시굴조사를 통해 제4기층이 확인되어 정밀조사가 이루어진 예가 없으며, 제4기층의 분포 범위가 조사지역 전체에 있는데 반해 구석기의 분포 범위는 상당히 협소한 경우가 많다는 점¹⁶⁾, 제4기층의 분포 범위가 조사지역 밖의 계곡 안쪽을 포함한 넓은 지역까지 포함한다는 점 등으로 보아 깨진 돌들이 출토된 탐색구덩을 중심으로 제4기층이 분포하는 범위내에서 확대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구석기의 존재 유무와 분포 범위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6) 박희현, 1997, 「구석기유적의 분포」『한국사 2』, 84~86쪽.

한국에서 발굴된 구석기유적 중 최대 면적은 1250㎡의 수양개유적이며, 그외의 유적들도 다른 주거지 및 산포지 유적에 비해서 상당히 제한적인 유물 분포범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 참고 : 1층 - 표토층(경작층), 2층 - 옅은 갈색 찰흙층, 3층 - 붉은 갈색 찰흙층(토양찌꺼기)
4층 - 붉은색 찰흙질 자갈층, 5층 - 적갈색 찰흙층

도면 5. I 지점 탐색구덩 층위도

2. II 지점

II 지점은 지형상으로 경사가 심하며 2곳에서 단이 지므로 크게 3개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단이 지는 곳은 단이 낮은 편이라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을 묶어 트렌치 7개를 설치하였고, 두 번째 단은 동쪽 능선 정상부와 서쪽 아래쪽으로 경사가 심해, 구분하여 트렌치 4개를 설치하였다.(도면 4, 사진 9) 층위는 전체 대상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크게 표토층-부식토층-붉은 찰흙층(제 4기층)·기반암의 4개 층으로 구분된다.

트렌치별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1트렌치는 조사지역 북서쪽 발에서 기와편들이 수습되어 유구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지역 밖에 설치되었다. 유구는 편평한 돌 3기와 기와편이 함께 출토되어 유구가 조사지역 밖과 맞물려 있는 상태이다. 석렬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동-서 방향으로 확대하여 유구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도면 6, 사진 10)

2트렌치는 북쪽에 적심으로 추정되는 큰 돌무지가 2개소 있는데, 크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북쪽으로 확대하여 적심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돌무지 주변에서 기와편이 다량 수습되었다. 또한 아래쪽에는 깎여진 편마암 기반암이 노출되었다.(도면 7, 사진 11·12)

3트렌치는 위쪽에 20~30cm 정도의 편평한 돌들이 동-서로 놓여져 있으며 유구는 아래쪽에 적심으로 추정되는 시설로 10여 개의 돌들이 집석되어 있다. 유물은 기와편 및 토기편이 다량 수습되었다.(사진 13)

4트렌치는 북쪽에 편평한 돌(추정 초석) 1기 주변으로 10cm 내외의 돌들이 산재되어 있으며, 그 주변에서 기와편이 다량 출토되고 있다. 아래쪽에 소토포함 유구(길이 40×40cm, 50×63cm) 2기가 남쪽 벽에 붙어 있다. 유구가 트렌치 남·북쪽 끝부분에서 확인되어 남쪽 건물쪽과 북쪽으로의 확대 조사가 필요하다.(도면 8, 사진 14·15)

5트렌치는 트렌치 중앙부에 50×70cm의 환형유구가 있으며, 아래쪽에서는 지표하 50cm지점에서 편마암 기반암이 노출되었다. 유물은 기와편이 일부 표토에서 수습되었다.(사진 16)

6트렌치는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지는데, 북쪽은 지표하 30~40cm 정도에서 30×20cm 크기의 판석 주변으로 기와편과 잔돌들이 산재해 있고, 남쪽은 지표하 1m 지점에서 많은 양의 기와편들과 큰 돌들이 놓여 있어 건물지의 주된 시설이 있던 지점으로 여겨지며, 공장 건물이 위치한 남쪽으로 조사지역을 확대한다면 더 자세한 건물지의 성격을 알 수 있을 것이다.(도면 9, 사진 17·18)

7트렌치는 북쪽의 지표하 20~40cm 아래에서 편마암 기반암이 노출되었으며 유물은 기와 및 토기편이 약간 수습되었다.

8트렌치는 북쪽 끝부분에 편평한 돌 7개가 집석되어 있으며, 1개는 북쪽 벽면에 붙어서 놓여 있다. 건물지와 관련한 시설로 보이며 미보상지역인 능선 위쪽으로 확대하여야 건물지의 존재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9트렌치는 북쪽에 편마암 기반암을 판판하게 다듬고 그 위에 초석(50×36cm) 1기가 놓여져 있다. 기반암 아래쪽 중앙부에는 210×61~67cm 크기의 민묘 1기가 능선 방향과 나란하게 놓여져 있다.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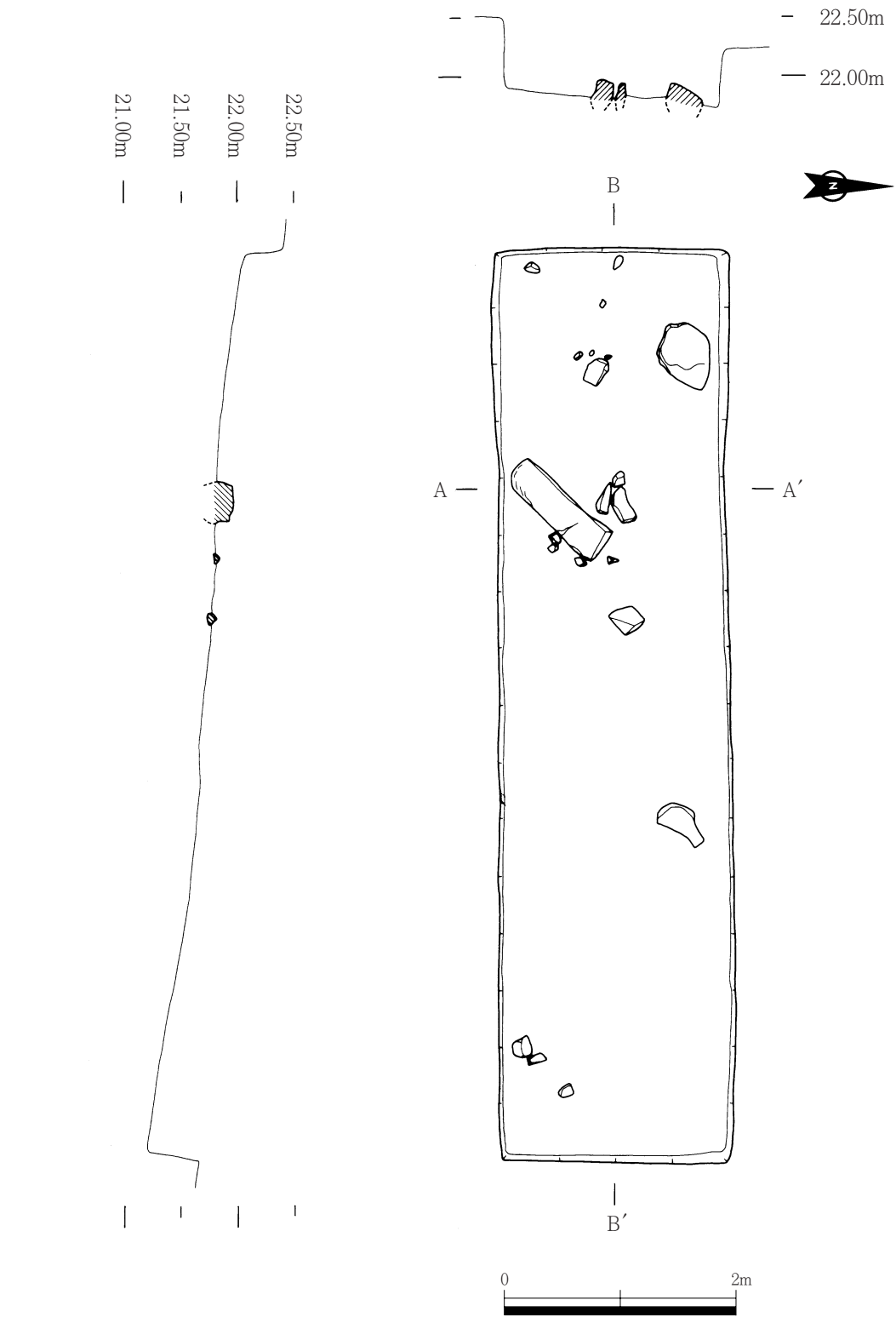
지점에 비해 고토양층의 두께는 북쪽에 편마암반층이 드러난 것으로 보아 얇은 것으로 판단된다.(도면 10, 사진 19·20)

10트렌치는 지표하 30cm 정도에서 고토양층이 확인되었으며 두께는 80cm 정도로 1지점의 고토양층과 비슷한 양상이며, 표토에서 기와편이 일부 수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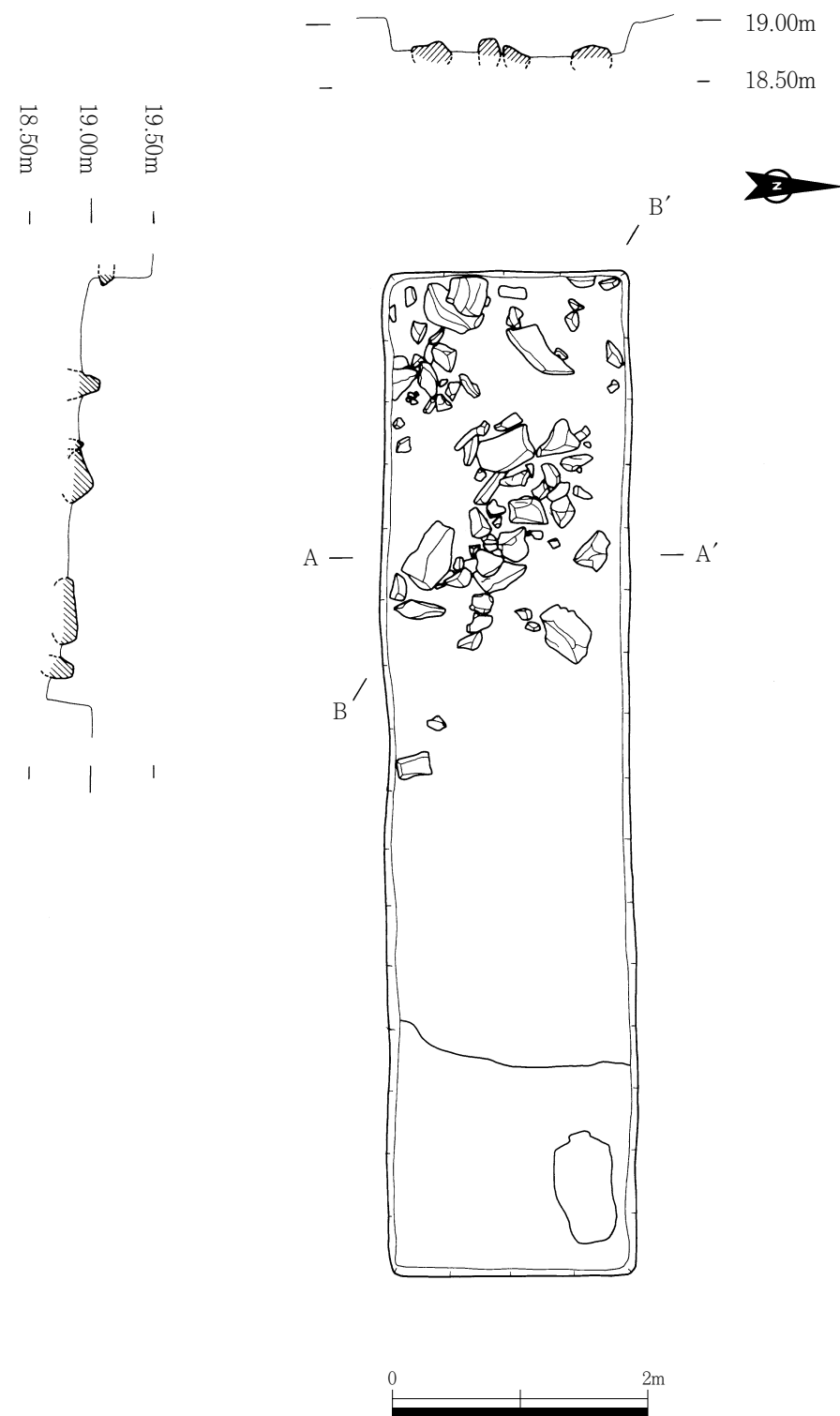
11트렌치는 지표하 30cm 지점에서 고토양층이 확인되었으며 표토에서 기와편이 일부 수습되었다.

표 1. Ⅱ 지점 트렌치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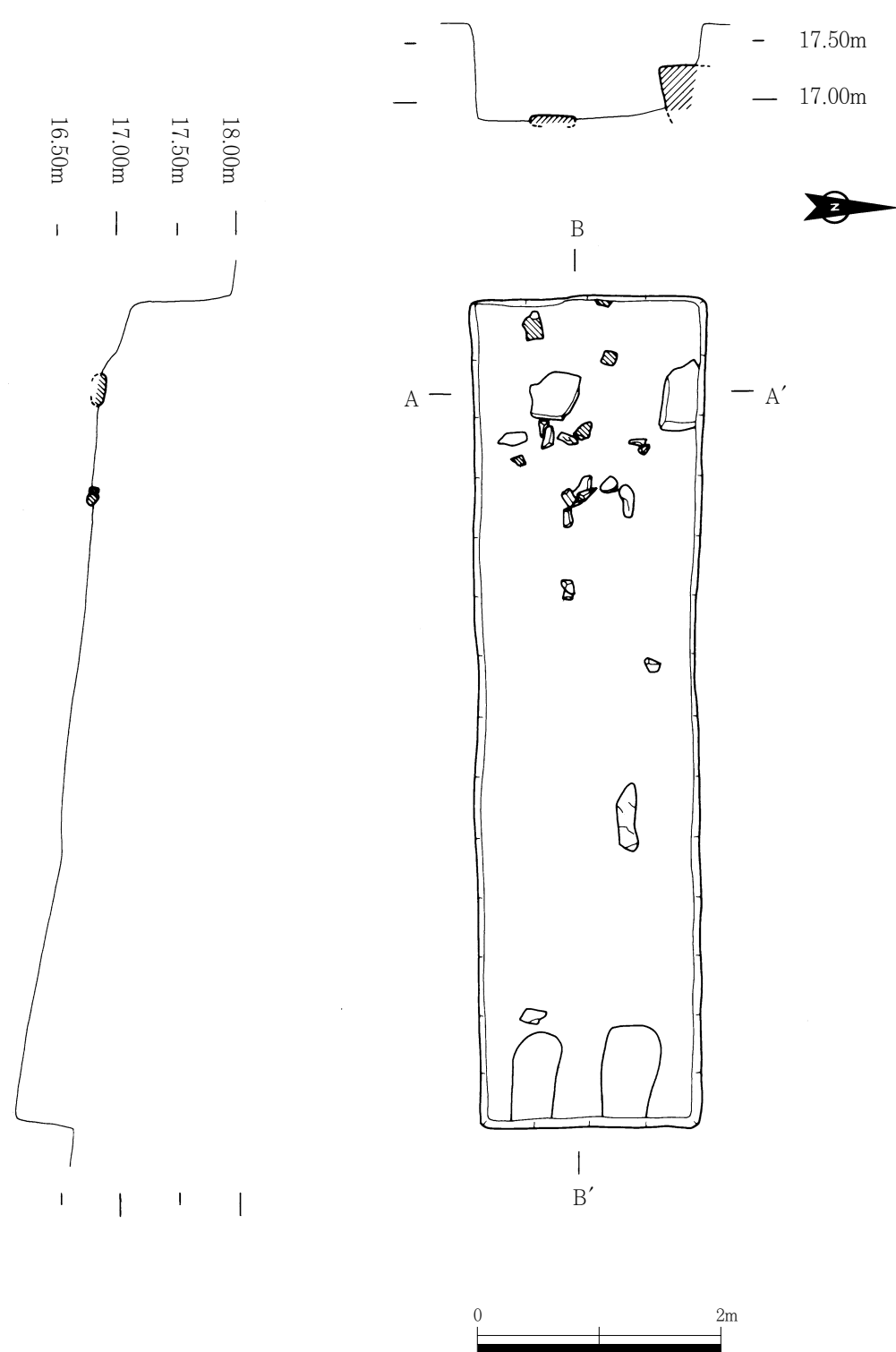
트렌치 번 호	트렌치 크기 (단위 : m)	조 사 내 용	비 고
1	2×8	• 조사지역 밖에 설치 • 편평한 돌 3기(추정 초석) • 기와편 출토	도면 6 사진 10
2	2×8	• 추정 적심 2기 • 기와편 출토	도면 7 사진 11·12
3	2×8	• 돌무지 1개소, 추정 적심 1기 • 기와편, 토기편 다량 출토	사진 13
4	2×8	• 편평한 돌(추정 초석), 동쪽 기와편 대량 출토, 서쪽 소토 2기 확인, 70~100cm 제토된 상태 • 기와편 다량 출토	도면 8 사진 14·15
5	2×8	• 환형유구 1기, 동쪽 풍화암반층 노출, 40~100cm 제토된 상태 • 기와편 출토	사진 16
6	2×8	• 전면에 큰돌들과 기와편 다량 출토 • 유물 출토 깊이 지표하 30~100cm • 기와편, 백자편 등 출토	도면 9 사진 17·18
7	2×10	• 동쪽 풍화암반층 노출(지표하 20~40cm) • 기와편, 토기편 출토	
8	2×12	• 동쪽 편평한 돌 2개 출토 • 기와편 출토	
9	2×15	• 토광 1기(210×61~67cm), 토광 아래 토기 구연부편 출토 • 청자편, 백자편 출토	도면 10 사진 19·20
10	2×15	• Test pit 2×2m 설치(고토양층 확인) • 기와편 출토	
11	2×15	• 기와편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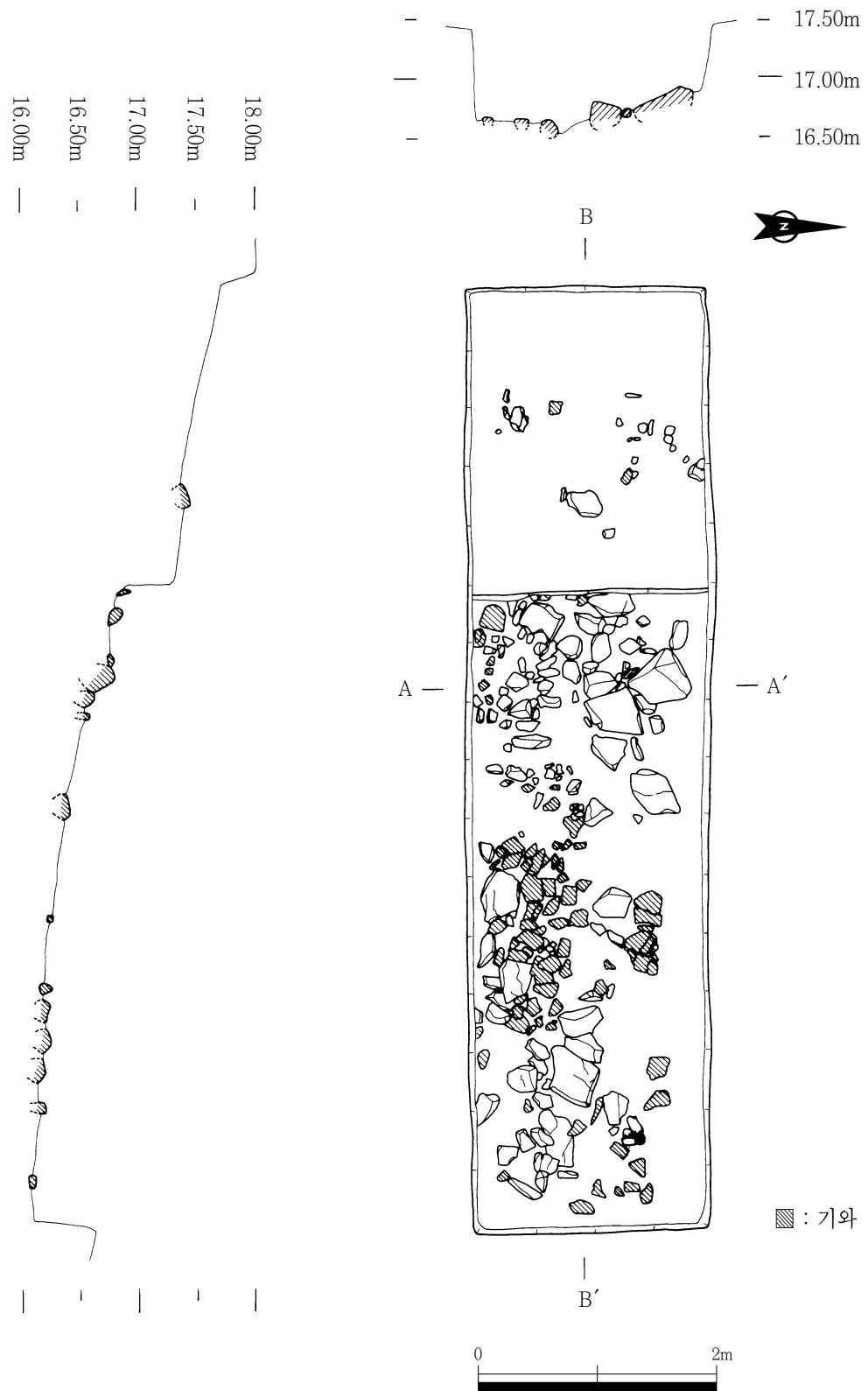
도면 6. Ⅱ 지점 Ⅰ 트렌치 평·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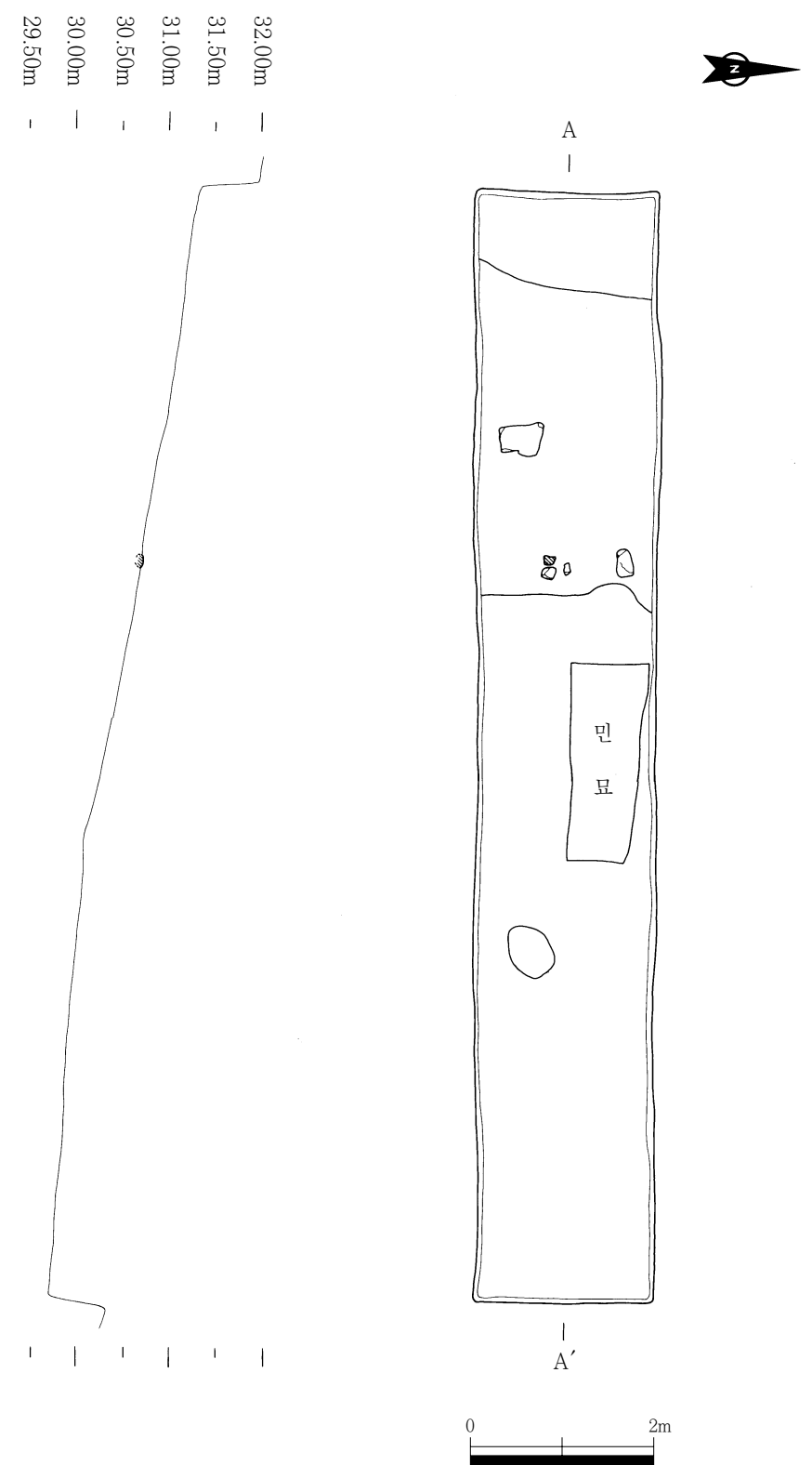
도면 7. Ⅱ 지점 2트렌치 평·단면도



도면 8. Ⅱ 지점 4트렌치 평·단면도



도면 9. II 지점 6트렌치 평·단면도



도면 10. II 지점 9트렌치 평·단면도

3. 수습유물

Ⅱ 지점은 지표조사시 청자편·도기편·기와편이 수습되어 건물지로 추정되었는데 시굴조사 결과 출토된 유물도 기와류 17점, 토기류 7점, 자기류 10점으로 확인된 유구와 함께 건물지 유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외에 갑발 1점이 출토되었다.

1) 기와류

① 무문 암키와(도면 11-①, 사진 21)

등면은 무문의 시문구로 타날한 후 등면 전체에 고운 물슬질을 하고 일부에 부정형한 격자형 문양을 새기었다. 내면에는 ‘十’ 형의 마포흔이 뚜렷하며 일부 거친 물슬질 흔적과 포묵은 흔적이 남아 있다. 분할면의 와도흔은 내면쪽에 두께의 1/5 가량이 남아 있다. 회청색 계통에 경질이다.(길이 21cm, 너비 16cm, 두께 1.4~2.0cm)

② 무문 암키와(도면 11-②, 사진 22)

등면에는 전면에 고운 물슬질흔만 남아 있다. 내면에는 슬질흔적만이 뚜렷하며 건장치기 흔적이 관찰된다. 분할면의 와도흔은 내면쪽에 1/3 가량을 남기었다. 회색 계통에 속심은 붉으며 연질이다. 태토에는 사립과 석영질이 많다.(길이 25cm, 너비 14cm, 두께 1.7~2.0cm)

③ 무문 암키와(도면 11-③, 사진 23)

등면은 무문에 고운 물슬질 흔적만 남아 있다. 내면의 마포흔도 잘 남아 있지 않으나 포묵은 흔적이 뚜렷하고 고운 물슬질을 하였으며, 건장치기 흔적도 관찰된다. 분할면의 와도흔은 내면 쪽에 두께의 1/3 가량을 남기었다. 회갈색 계통에 속심은 붉으며 연질이다. 태토에는 사립과 석영질이 많다.(길이 19cm, 너비 21cm, 두께 2.0~2.3cm)

④ 무문 암키와(도면 12-①, 사진 24)

등면은 물손질 후 고운 물슬질을 부분적으로 하였다. 내면의 마포흔은 ‘十’ 형이며, 부분적으로 거친 물슬질을 하였고 포묵은 흔적이 관찰된다. 분할면의 와도흔은 내면쪽에 1/2 가량을 남기었다. 회갈색 계통으로 경질에 가까우며 태토에는 사립이 많다.(길이 18cm, 너비 16cm, 두께 2.2~2.5cm)

⑤ 방곽문계 암키와(도면 12-②, 사진 25)

등면은 서로 다른 크기의 ‘◇’ 형의 중첩 방곽문, 또는 회(回)문을 시문하였다. 내면은 마포흔 위에 거친 물슬질흔이 남았다. 분할면은 남아 있지 않으며, 갈색 계통에 연질이다. 태토에는 사립과 석영질이 포함되어 있다.(길이 12cm, 너비 10cm, 두께 1.8~2.2cm)

⑥ 방곽문계 암키와(도면 12-③, 사진 26)

등면은 한 번이 약 4cm 가량의 정방형 곱내에 두 개의 ‘◇’ 형의 중첩 방곽문, 또는 회(回)문을 배치하고 곱 위아래로 크기가 다른 같은 문양을 조밀하게 시문하였다. 내면은 마포흔 위에 일부 거친 물슬질흔과 점토합흔이 남았다. 분할면은 알 수 없으며 회갈색 계통에 연질이다.(길이 5cm, 너비 12cm, 두께 1.4~1.6cm)

⑦ 가로선문 암키와(도면 12-④, 사진 27)

등면은 단선의 가로선문을 새긴 폭 4cm의 시문구를 사용하여 문양을 시문하였다. 내면은 마포흔이 불분명하나 그 위로 부분적인 물슬질 흔적이 남아 있다. 분할면의 와도흔은 내면 쪽에 1/3 가량이 남아 있고 회갈색 계통에 연질이다. 태토는 사립과 석영질이 많다.(길이 9cm, 너비 12cm, 두께 2.3~2.6cm)

⑧ 사선문 암키와(도면 12-⑤, 사진 28)

등면은 단선의 사선문을 새긴 폭 2.5cm, 길이 6cm의 시문구로 문양을 시문한 듯하다. 내면에는 정방형의 마포흔이 잘 남아 있고 부분적으로 거친 물슬질을 하였다. 분할면은 알 수 없으며 회청색 계통에 경질이다. 태토는 석영질이 많다.(길이 10cm, 너비 8cm, 두께 2.0~2.2cm)

⑨ 어골문 암키와(도면 12-⑥, 사진 29)

등면은 변형 어골문을 시문하였다. 어골문의 세로선을 중심으로 한쪽은 정형화된 가지모습을 나타내나 다른 한쪽은 가지의 모양이 불규칙적이거나 정면과정에서 지워진 듯하다. 내면에는 서로 다른 마포를 엮은 흔적이 남아 있다. 분할면의 와도흔은 분할선을 따라 내면 쪽에 1/4 가량이 관찰된다. 회갈색 계통에 속심은 회색을 띠며 경질이다.(길이 12cm, 너비 8cm, 두께 1.8~2.0cm)

⑩ 어골문 암키와(도면 13-①, 사진 30)

등면은 폭 3cm 가량의 시문구에 가는 세선의 어골문을 새긴 시문구로 문양을 일부 겹치게 시문하여 겹친 부분은 마치 격자문처럼 나타난다. 내면의 마포흔은 잘 남아있지 않고 일부에 고운 물슬질을 하였다. 분할면의 와도흔은 내면 쪽에 약 1/3 가량 남아 있다. 갈색 계통에 연질이며 태토에는 사립과 석영질이 많다.(길이 10cm, 너비 9cm, 두께 2.0~2.3cm)

⑪ 어골문 암키와(도면 13-②, 사진 31)

등면은 전형적인 어골문을 시문하였으며, 시문구의 폭은 약 6cm로 정확한 길이는 알 수 없으나 장판인 듯하다. 등면 일부에 고운 물슬질이 남아 있다. 내면에는 정방형의 마포흔이 잘 나타나 있고 일부에 거친 물슬질과 함께 물질흔적이 관찰된다. 분할면의 와도흔은 분할선을 따라 내면 쪽에 반정도 남아 있다. 회청색 계통에 경질이며 태토질이 치밀하다.(길이 13cm, 너비 12cm, 두께 1.8~1.9cm)

⑫ 복합문 암키와(도면 13-③, 사진 32)

등면은 시문구에 어골문과 ‘◇’ 형의 중첩 방곽문, 또는 회문을 새겨 복합문을 시문하였다. 시문구의 폭은 약 5cm이며 길이는 알 수 없으나 장판으로 보인다. 내면은 방형의 마포흔과 함께 긴장치기흔이 나타나며 일부 대질흔적도 있다. 분할면의 와도흔은 분할선을 따라 내면 쪽에 1/5 가량 남아 있다. 회갈색 계통에 일부 붉은색을 띠며 경질이다.(길이 22cm, 너비 11cm, 두께 2.0cm)

⑬ 복합문 암키와(도면 13-④, 사진 33)

등면은 시문구에 어골문과 중첩 방곽문을 새겨 복합문을 시문하였다. 내면 마포의 흔적은 잘 보이지 않으나 일부 거친 물술질 흔적이 남아 있다. 분할면의 와도흔은 분할선을 따라 내면 쪽에 1/3 가량 남아 있으며, 황갈색 계통에 연질이다.(길이 9cm, 너비 8cm, 두께 2.0~2.2cm)

⑭ 복합문 암키와(도면 14-①, 사진 34)

등면은 시문구에 어골문과 세장방형의 격자문을 새겨 복합문을 시문하였다. 내면에는 마포흔과 함께 물질흔 및 일부 거친 물술질이 관찰된다. 분할면의 와도흔은 분할선을 따라 내면 쪽에 1/3 가량 남아 있다. 회청색 계통에 경질이다.(길이 9cm, 너비 8cm, 두께 2.0~2.2cm)

⑮ 복합문 암키와(도면 14-②, 사진 35)

등면은 폭 5~6cm 가량의 시문구에 어골문과 함께 한변 1.5cm 가량의 ㄱ 형 문을 새겨 복합문을 시문하였다. 내면에는 정방형의 마포흔과 함께 부분적으로 대질흔적과 물질흔이 남아 있다. 분할면의 와도흔은 분할선을 따라 내면 쪽에 1/3 가량 남아 있다. 회청색 계통에 경질이며 태토는 석립과 석영질이 많다.(길이 15cm, 너비 11cm, 두께 1.8~2.1cm)

⑯ 복합문 암키와(도면 14-③, 사진 36)

등면은 폭 5cm 가량의 시문구에 어골문과 함께 기타 문양을 새겨 복합문을 시문하였다. 내면의 마포흔은 잘 남아있지 않으며 물술질을 하였다. 분할면은 남아있지 않다. 갈색 계통에 연질이며, 태토는 사립이 많다.(길이 17.5cm, 너비 10cm, 두께 2.2~2.6cm)

⑰ 복합문 암키와(도면 14-④, 사진 37)

등면은 시문구에 변형 어골문과 중첩 방곽문계의 문양을 새겨 복합문을 시문하였다. 내면의 마포흔은 정방형이며 일부 물질흔적이 남았다. 분할면은 알 수 없으며, 회청색 계통에 경질이다.(길이 10cm, 너비 7.5cm, 두께 1.7~2.0cm)

거모동 건물지에서 출토되는 기와의 시문 종류는 무문 4점, 방곽문계 2점, 선문계 2점, 어골문계 9점으로 어골문 계통의 기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외에 무문과 선문계통, 그리고 방곽문 계통의 기와가 출토되고 있다. 어골문계 기와들은 크게 어골문 단독으로 시문된 경우와 어골문을 주문양으로

하여 다른 문양이 복합된 형태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무문과 방곽문계는 모두 고려기와로 생각되나 일부는 조선 초에도 사용되었으므로 연대는 대체로 려말선초로 여겨진다.

2) 토기류

① 동이(사진 38)

평저의 동이로 전체의 1/3 정도가 남아 있으며 기형을 파악할 수 있다. 동체는 저부에서 대각선으로 올랐으며 구연부는 파손되었다. 기벽은 2~3mm 정도로 전체적으로 얇으며, 내·외면에는 물레흔이 황으로 남아 있다. 태토는 점토이며 회색 연질이다.(복원 저경 16cm, 잔존 높이 11.2cm, 기벽 두께 2~3mm)

② 저부편(도면 15-①, 사진 39)

바닥면과 동체의 일부가 남아 있으며, 바닥의 형태는 평저이다. 동체는 무문으로 내·외벽에 물레흔이 남아 있다. 태토는 가는 석립이 섞인 점토로 회색 연질이다.(높이 3.2cm, 기벽 두께 6~10mm)

③ 동체부편(도면 15-②, 사진 40)

동체부편으로 외벽에 문양이 시문되어 있다. 문양은 2줄의 침선을 시문한 가로직선문이다. 내·외면에 물술질 자국이 있으며 외면은 흑색이고 안쪽은 황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가는 석립이 낀 황갈색 연질이다.(8.5×5.5cm, 기벽두께 5mm)

④ 동체부편(도면 15-③, 사진 41)

동체부편으로 외벽에 문양이 시문되어 있고 내면에 물레흔이 남아 있다. 문양은 5개의 돌대가 시문되었고 그 아래 타날문이 시문되었다. 태토는 가는 석립이 낀 회청색 경질이다.(10.7×8.8cm, 기벽두께 8mm)

⑤ 동체부편(도면 15-④, 사진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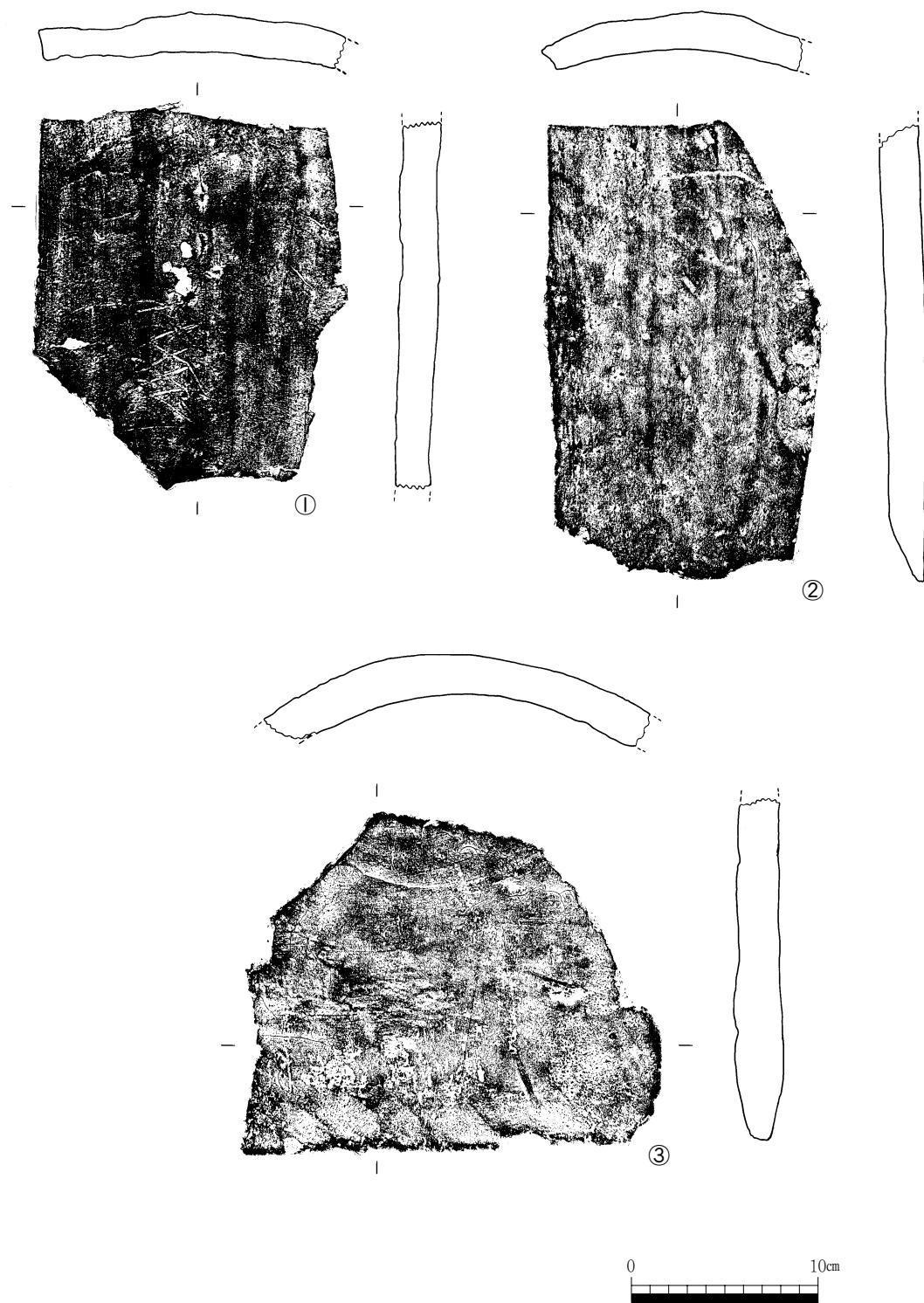
동체부편으로 외벽에 얇은 타날문, 내벽에 깊은 타날문과 물레흔이 황으로 남아 있다. 태토는 가는 석립이 낀 회청색 경질이다.(9.5×6.2cm, 기벽두께 5mm)

⑥ 동체부편(도면 15-⑤, 사진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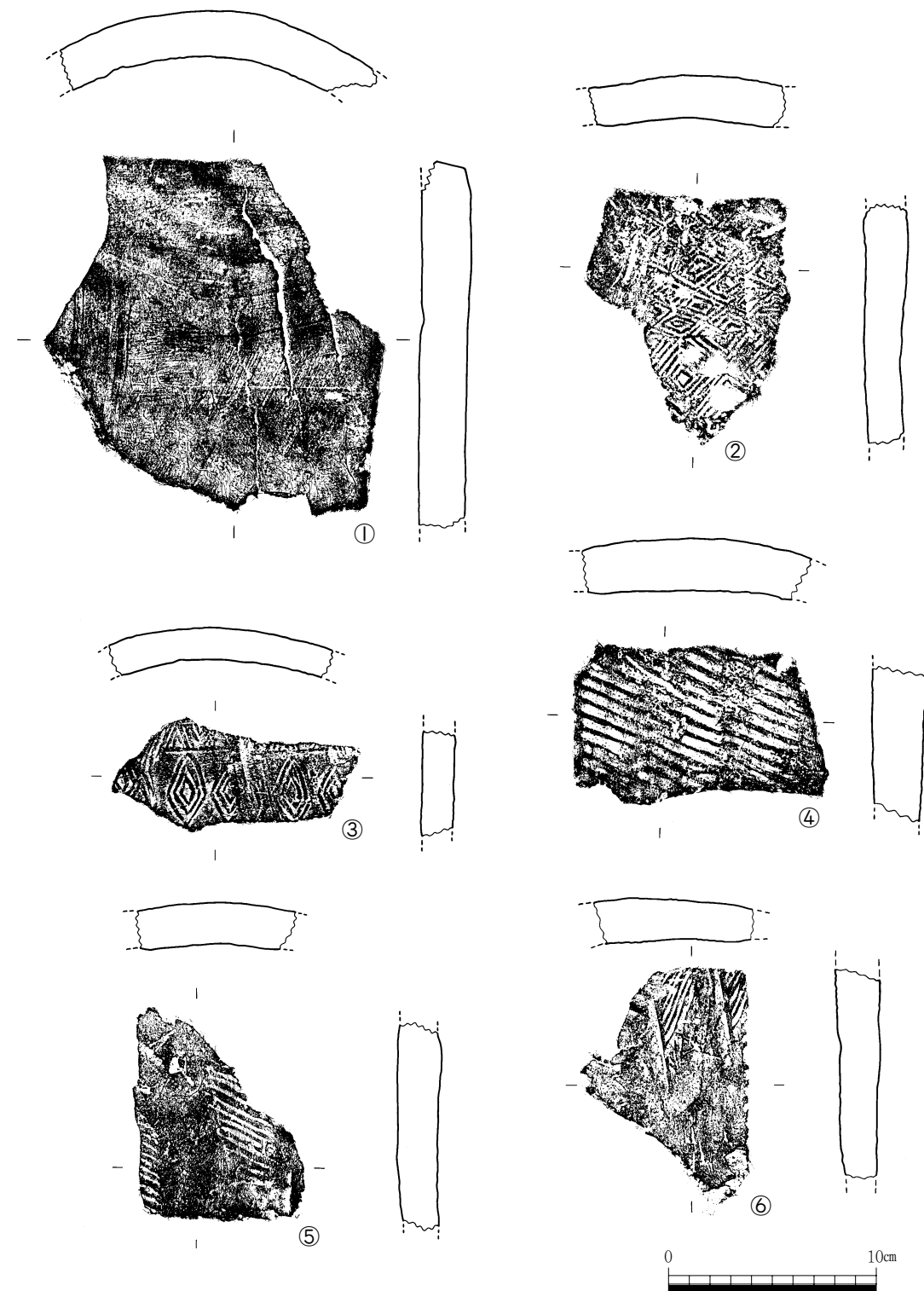
동체부편으로 외벽 문양이 시문되어 있고 내면에 물레흔이 남아 있다. 문양은 타날문을 먼저 시문한 후 2줄의 침선을 시문하였다. 태토는 고운 점토이며 회청색 경질이다.(8.4×6.8cm, 기벽두께 5mm)

⑦ 동체부편(도면 15-⑥, 사진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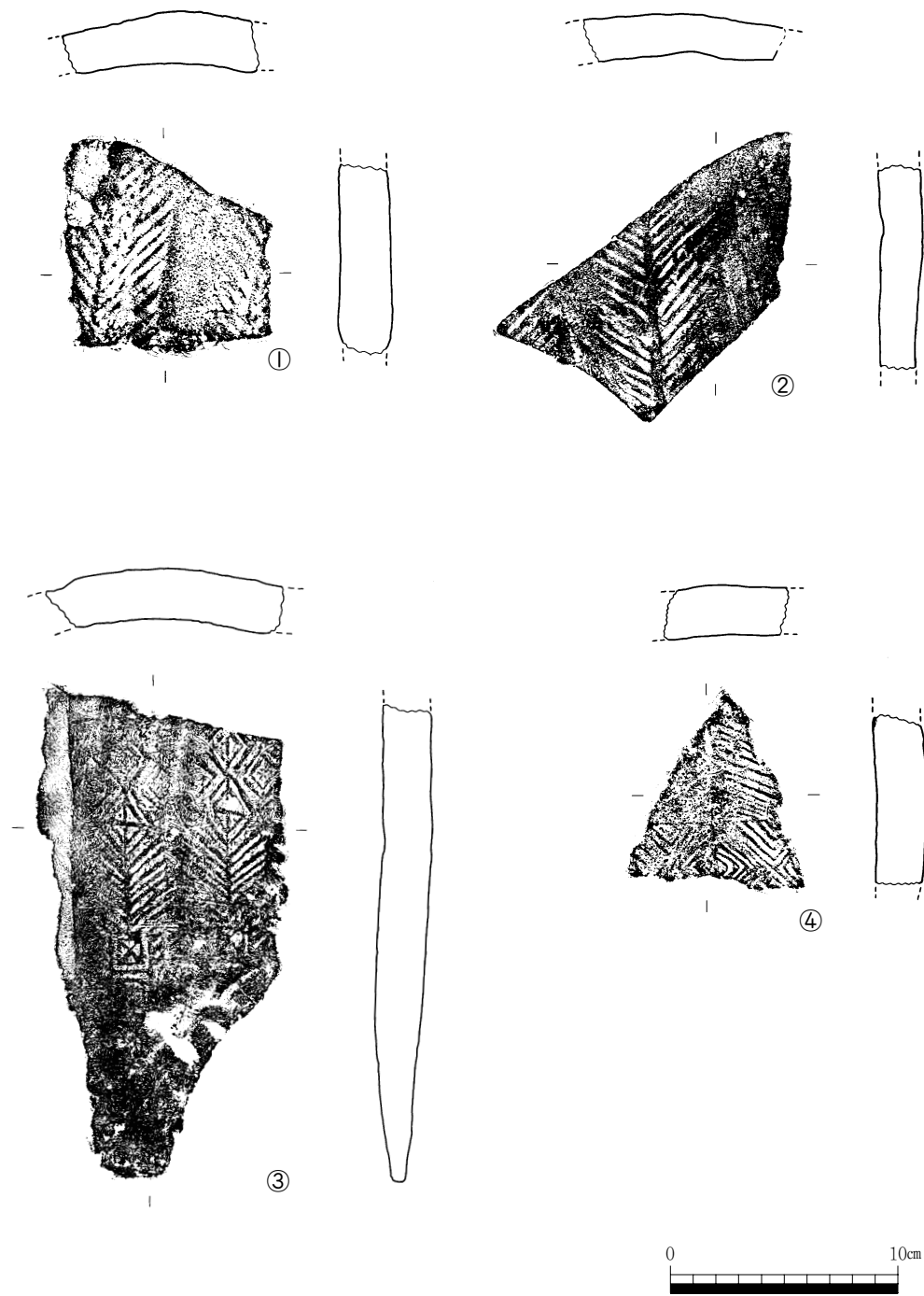
동체부편으로 무문이며 내면에 깊은 타날문이 남아 있다. 태토는 고운 점토이며 회청색 경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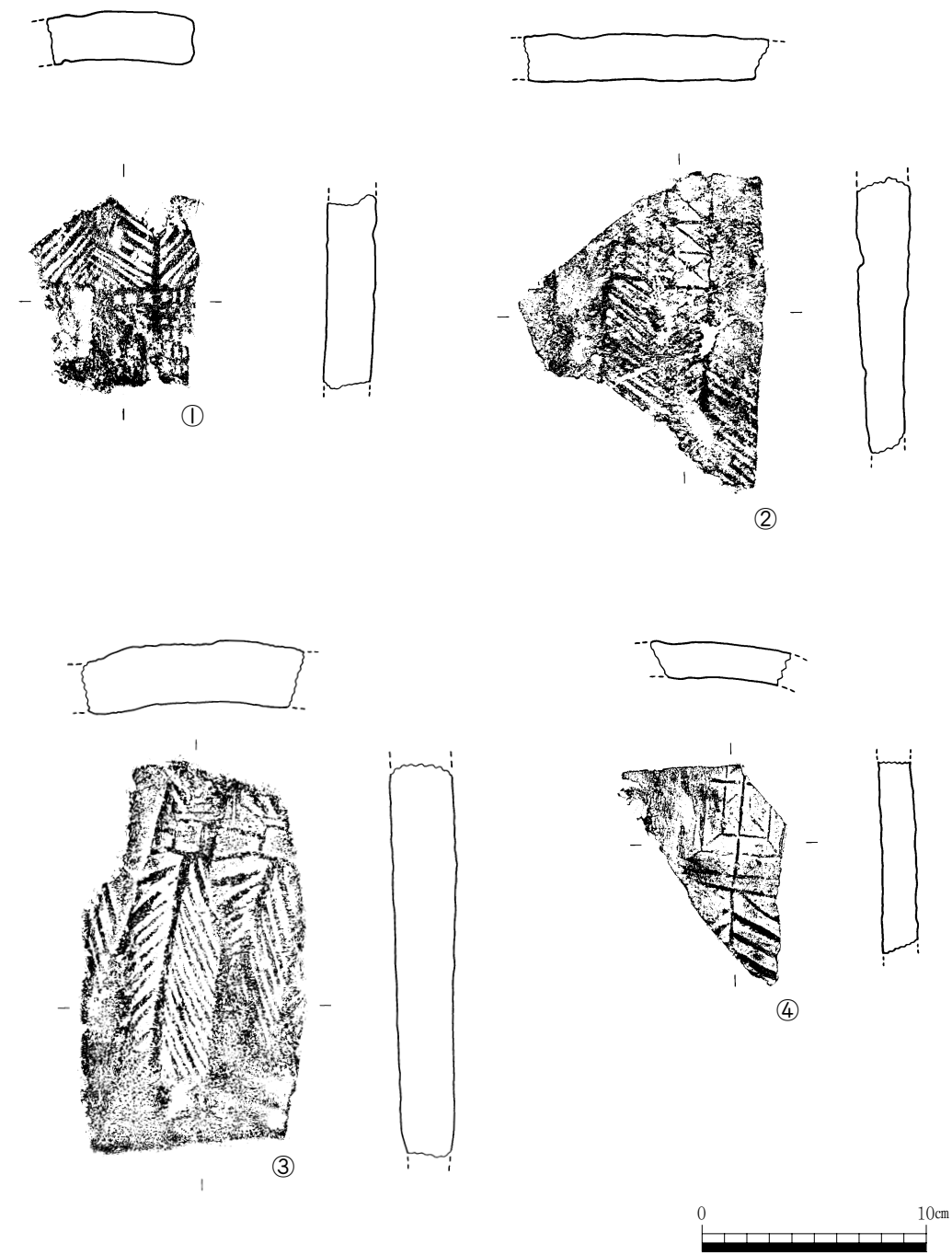
도면 11. Ⅱ지점 출토 무문 암키와(①~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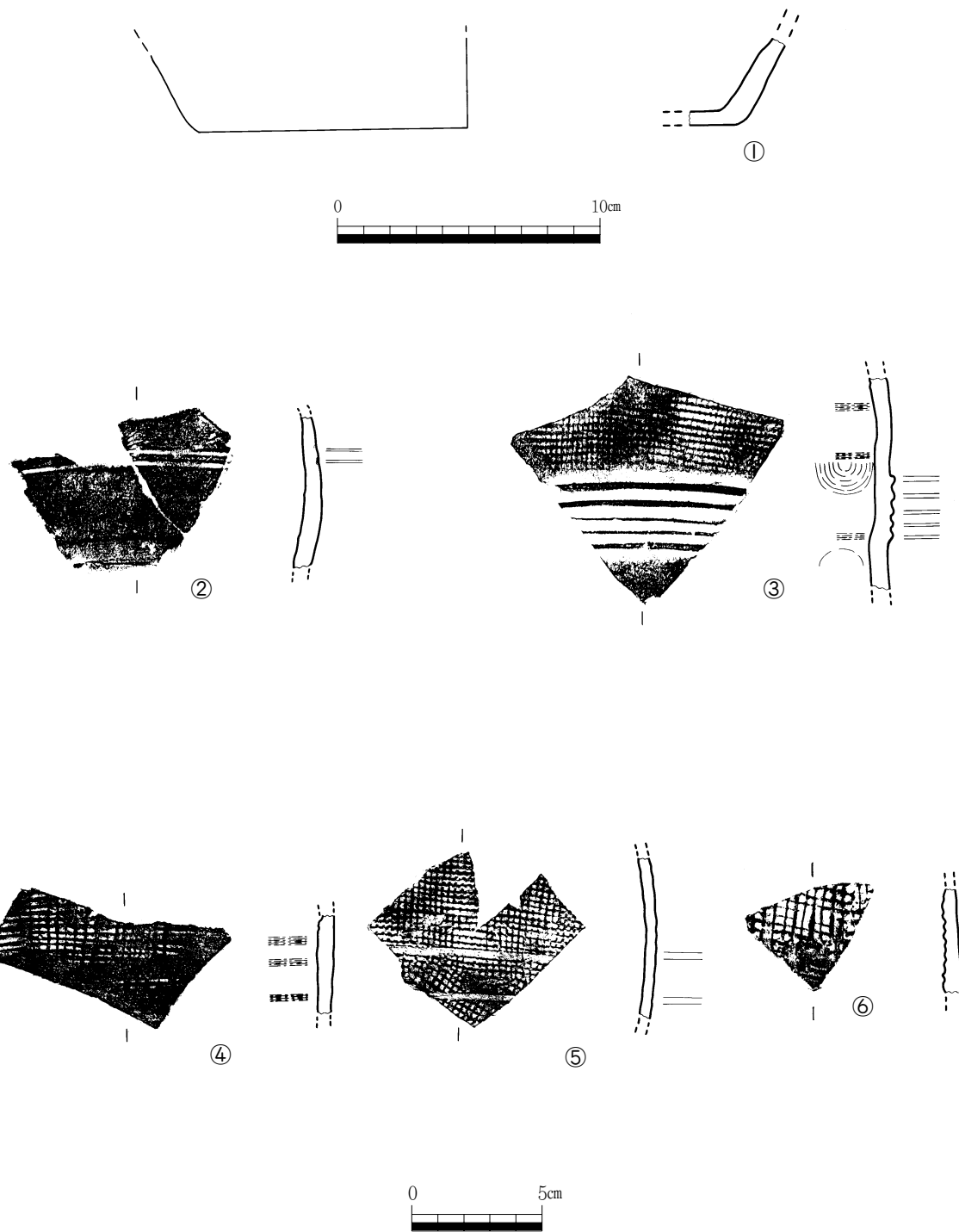
도면 12. Ⅱ지점 출토 무문①, 방곽문계②~③, 가로선문④, 사선문⑤, 어골문⑥ 암키와



도면 13. Ⅱ 지점 출토 어골문①~②, 복합문③~④ 암키와



도면 14. Ⅱ 지점 출토 복합문 암키와(①~④)



도면 15. Ⅱ 지점 출토 토기류(①~⑥)

다.(5.3×4.1cm, 기벽두께 6mm)

이번 시굴조사에서 기와와 더불어 많은 양의 토기가 수습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파손된 상태로 수습되었고 1개체 만이 일부 복원이 가능한 상태이다. 종류는 동이와 반이 출토되었으며, 회색연질토기와 회청색 경질토기가 주를 이룬다. 태토는 가는 석립과 점토가 섞인 것과 고운 점토만으로 된 2가지 종류이다. 그리고 수습 유물은 주로 동체부 파편이 많은데 모두 기울기가 완만한 편으로 큰 기종의 토기에서 깨진 것으로 여겨지며 종류가 확인된 동이와 반도 저부의 기울기와 동체의 각도로 보아 이를 입증하여 주고 있다. 토기를 통해 본 건물지의 연대는 고려시대의 것들로 자기·기와의 연대와 비슷한 고려시대 말기에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3) 자기류

① 백자발편(도면 16-①, 사진 45)

굽과 저부가 각각 ½씩 남아 있다. 내저곡면형에 기면은 저부에서 한번 꺾인 후 직립했다. 굽의 외형은 수직굽 형태이나 굽 안쪽은 약한 곡면형이고 굽지름은 6.9cm이며, 접지면의 너비는 0.6cm 내외로 투박하다. 태토는 밝은 회백색에 단면에 작은 기공(氣空)이 있다. 내저면에 나선형의 물레자국이 남아 있다. 굽 안쪽을 포함한 기면 전체에 유약이 두껍게 시유되었고 용융상태는 불량하다. 광택이 약하고 빙열이 없으며, 내저면에는 굵은 모래 비짐을, 접지면에는 모래를 받쳐 번조했다. 기형과 기벽의 두께가 전체적으로 투박하다.

② 백자대접편(도면 16-②, 사진 46)

굽 전체와 동체 저부 일부가 남아 있다. 지름 8.2cm 내외의 뚜렷한 內底圓刻이 있고 내저면과 접지면에 각각 4개씩의 태토비짐눈이 있다. 시유되지 않은 굽 전체는 대마디형태가 뚜렷하지 않고 굽 안쪽 중심에 작은 돌기가 있고 굽지름은 6.6cm이고, 접지면 너비는 0.5cm 내외로 투박하다. 태토는 불순물이 없이 깨끗하게 수비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유약의 용융상태가 불량하고 유층박락이 심하다. 광택이 약하고 유색은 탁하며, 밝은 회백색이다.

③ 백자편(도면 16-③, 사진 47)

굽 ⅔와 저부 일부가 남아 있다. 내저곡면형에 굽다리 외형의 꺾임새가 정교하지 않으며 굽 바깥쪽을 돌아가면서 1.0~1.9cm 정도로 눌린자국이 3개 있고 굽지름은 6.5cm이다. 내저면과 내측면의 경사도로 보아 대접 또는 발(鉢)편으로 추정된다. 태토에 작은 모래가 섞여 있어 거칠고 태토와 유색은 회록색조이다. 굽 안쪽까지 두껍게 시유되었고 잔빙열이 있다. 광택은 약하고 내저면 4곳에 모래비짐눈 4개와 유약을 훑지 않은 접지면에 3개의 모래비짐눈이 남아 있다.

④ 백자초별편(도면 16-④, 사진 48)

굽전체와 저부 일부가 남아 있는 초벌편이며 대접편으로 추정된다. 내저곡면형으로 측면은 완만한 곡사선을 이루고 있다. 지름 7.4cm 내외의 굽다리에 대마디형태가 약하고 굽 안쪽과 외측면 저부에 굽 깎기 과정에서 생긴 칼자국이 원형을 이루며 뚜렷하게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된 편이지만 작은 모래가 섞여 있다.

⑤ 백자편(도면 16-⑤, 사진 49)

측면 일부와 구연부 일부가 남아 있다. 기면은 저부에서 완만한 곡면을 이루어 올라왔고, 구연은 외반했다. 태토는 입자가 치밀한 편이고 유색은 어두운 회백색이다. 내외면에 투명유가 얇게 시유되었고 외측면에 잔빙열이 있다.

⑥ 백자접시편(도면 16-⑥, 사진 50)

지름 3.8cm 내외의 굽 전체와 저부 일부가 남아 있다. 내저면은 편평하고, 굽다리 외형에 대마디형태가 있고 굽 안쪽은 오목굽 형태이다. 태토는 불순물이 없이 정선된 회백색이고, 접지면과 내저면에 각각 모래비집눈이 3개씩 있다.

⑦ 백자편(도면 17-①, 사진 51)

측면 일부와 구연부 일부가 남아 있으며, 발 또는 대접편으로 추정된다. 완만한 곡면을 이루며 올라온 기면에 약한 양감이 있고 구연은 외반했다. 태토는 치밀하게 정선되었고 내외면에 투명유가 얇게 시유되었다. 광택이 강하고 빙열이 없으며 유색은 담청백색이다. 기벽이 매우 얇다.

⑧ 청자(도면 17-②, 사진 52-① · 53-①)

바닥 일부가 남아 있는 작은 청자편으로 기형은 알 수 없다. 정선된 회색 태토에 청자유가 두껍게 시유되었고 잔빙열이 있다. 유색은 맑은 녹청색조이고 광택이 강하다. 내저면 가장자리에 음각선이 있다.

⑩ 청자편(도면 17-③, 사진 52-② · 53-③)

기형을 알 수 없는 작은 청자편으로 회색태토에 내외면에 청자유가 시유되었다. 잔빙열이 있으며 외면보다 내면의 광택이 강하다. 유색은 녹회색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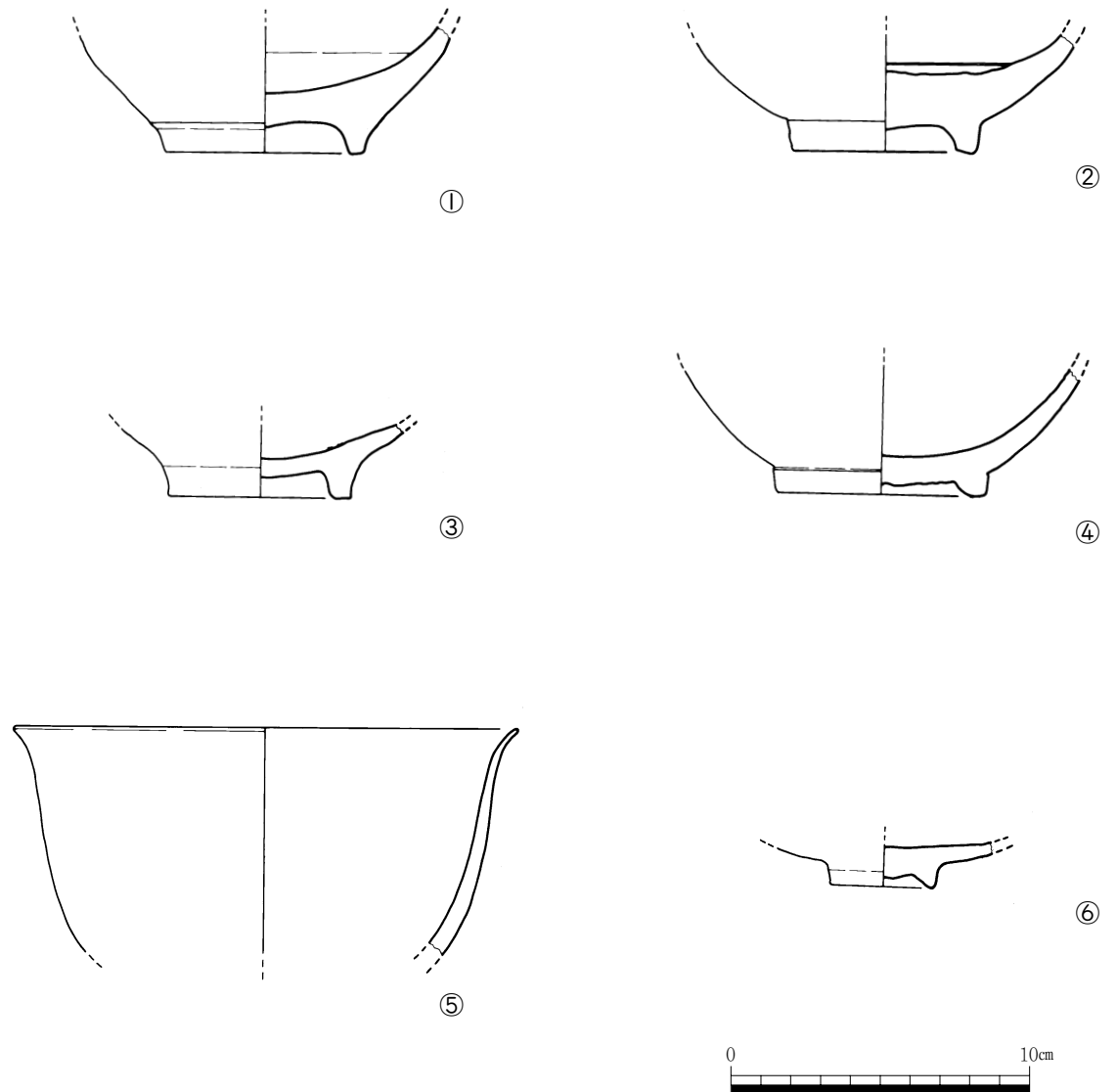
⑨ 청자(도면 17-④, 사진 52-③ · 53-③)

매우 작은 조질 청자편으로 어두운 회색의 태토에 작은 모래가 섞여 있다. 내외면에 유약이 시유되었으며 유색은 암녹색이다.

⑪ 갑발편(도면 17-⑤, 사진 54)

M자형 갑발편으로 윗면은 중심으로 가면서 약하게 오목해졌고 측면은 직립했다. 외면은 암갈색이고 내면은 갈색조이다. 태토에 굵은 모래가 섞여 있고 윗면에 굵은 모래가 일부 붙어 있다.

자기류는 크게 청자와 백자로 구분되며 청자는 지표조사시 완, 접시, 뚜껑이 확인되었으나 시굴조사 시에는 편만 3점이 출토되어 기종을 알 수 없다. 백자는 접시 · 대접 · 발이 각 1점씩 확인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편이라 다른 기종을 더 알 수 없다. 연대는 청자의 경우 편으로만 출토되어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 말기의 것으로 여겨지며, 백자는 조선시대 중기로 여겨진다.



도면 16. II 지점 출토 자기류(①~⑥)

V. 맺음말

본 조사를 통하여 I 지점에서 고토양층과 함께 구석기로 추정되는 유물이 확인되어 구석기 존재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며, II 지점에서는 고려시대~조선시대에 해당하는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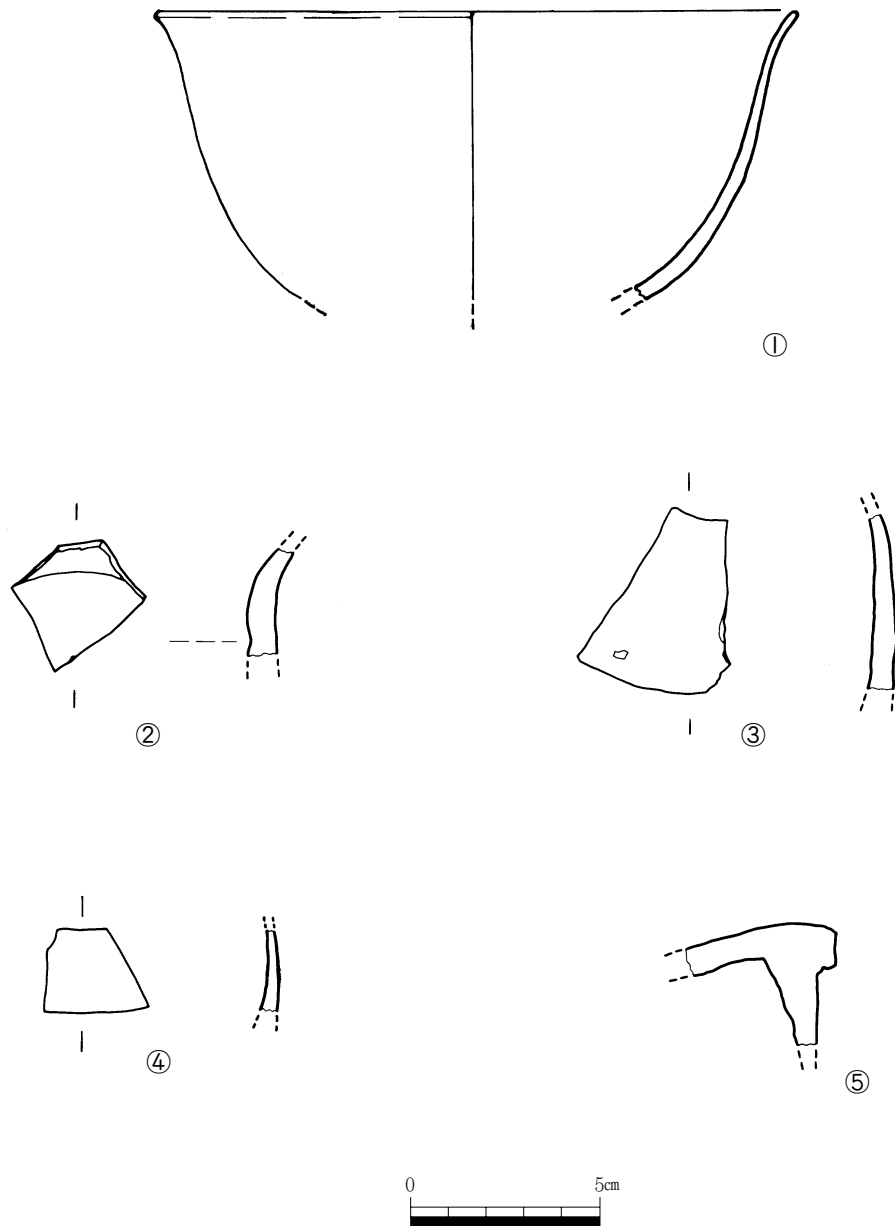
출토된 유물은 I 지점의 깨진 몸돌(추정), 격지(추정)와 II 지점의 도·토기류와 자기류로 특기할 만한 것은 없다. 단지 구석기 유물은 고토양층 내에서 출토되고 있으나 좁은 범위에서 확인되어 향후 확대 시굴조사가 필요하다. II 지점의 경우 건물지에 해당하는 석렬들과 부속되는 시설들이 확인되었으며 출토유물은 기와류·토기류·자기류이다. 이들 유물을 통해 볼 때 건물지는 고려 말 ~ 조선 중기에 까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막새기와나 상감청자 등과 같은 상품의 유물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주요 건물지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조사의 방향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I 지점은 지표조사시 건물지로 추정되었지만 조사결과 구석기시대에 해당하는 고토양층이 확인되었으며 1×2m의 탐색구덩에서 구석기로 추정되는 깨진 몸돌과 격지가 확인되었다. 이런 근거로 유물이 출토된 탐색구덩 주변을 확대 시굴조사하여 유물의 출토 유무 및 집중도를 확인한 후 주변에 몇 개의 깊은 탐색구덩을 추가로 설치하여 분포 범위를 조사하여 발굴조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II 지점은 건물지의 연대가 고려 말에서 조선 중기에 해당하는 3기 이상의 건물지와 관련한 유구가 확인되었으므로 전면 발굴조사를 원칙으로 건물지 주변의 확대 발굴조사 및 토양층 확인, 석렬 확인과 건물지간의 연대 확인 등에 중점을 두어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II 지점의 조사대상지역 중 북쪽의 구릉부와 동쪽의 묘목밭인 미 보상지역은 건물지와 관련한 지역이며,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만 정확한 유구의 성격을 밝힐 수 있으므로 발굴대상지역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적의 가운데를 관통하는 논으로 경작되는 지역은 실제 건물지가 발굴된 예가 있고, II 지역의 건물지 중 2기가 논 쪽인 계곡부 쪽으로 확대 발굴조사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발굴조사시 트렌치를 추가 구획하여 조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17. II 지점 출토 백자편①, 청자편②~④, 갑발편⑤

사 진



사진 1. 조사지역 전경



사진 3. I 지점 12트렌치 전경



사진 2. I 지점 전경



사진 4. I 지점 토양빼기층 노출 모습



사진 5. I 지점 탐색구덩 지층 자른면



사진 7. I 지점 출토 몸돌(추정)



사진 6. I 지점 토양빼기층 깨진 돌 출토 모습



사진 8. I 지점 출토 격지(추정)



사진 9. Ⅱ 지점 전경



사진 11. Ⅱ 지점 2트렌치 전경



사진 10. Ⅱ 지점 1트렌치 전경



사진 12. Ⅱ 지점 2트렌치 유구 노출 모습



사진 13. Ⅱ 지점 3트렌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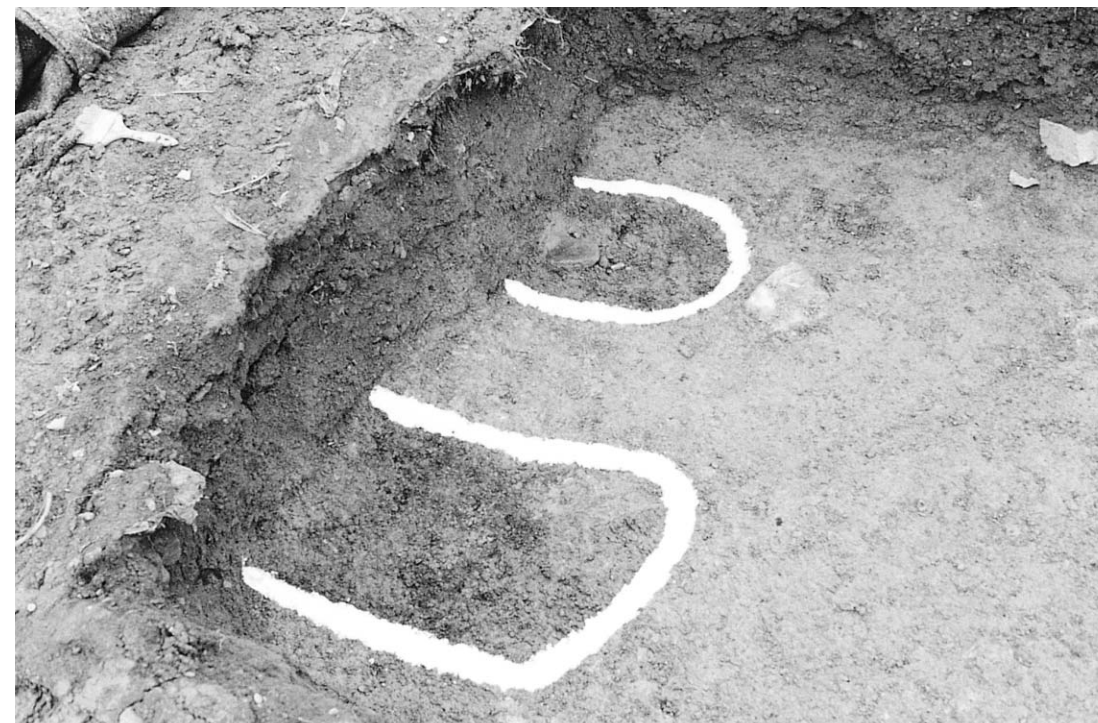


사진 15. Ⅱ 지점 4트렌치 유구 노출 모습



사진 14. Ⅱ 지점 4트렌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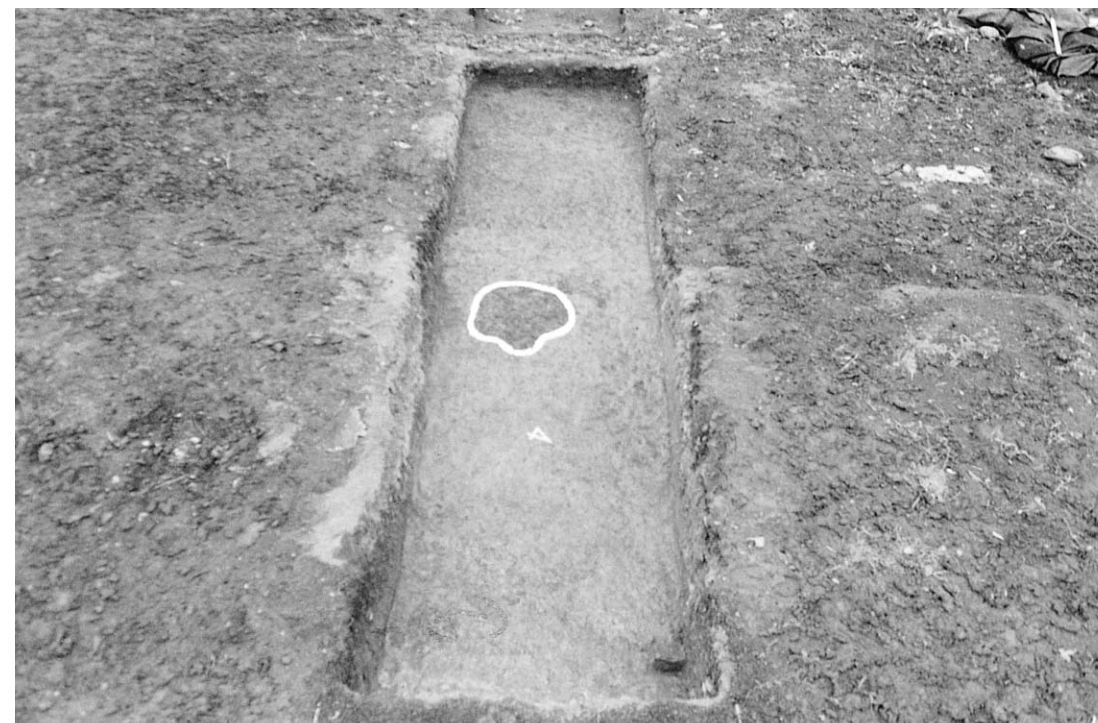


사진 16. Ⅱ 지점 5트렌치 전경



사진 17. II 지점 6트렌치 전경



사진 19. II 지점 9트렌치 전경



사진 18. II 지점 6트렌치 유구 노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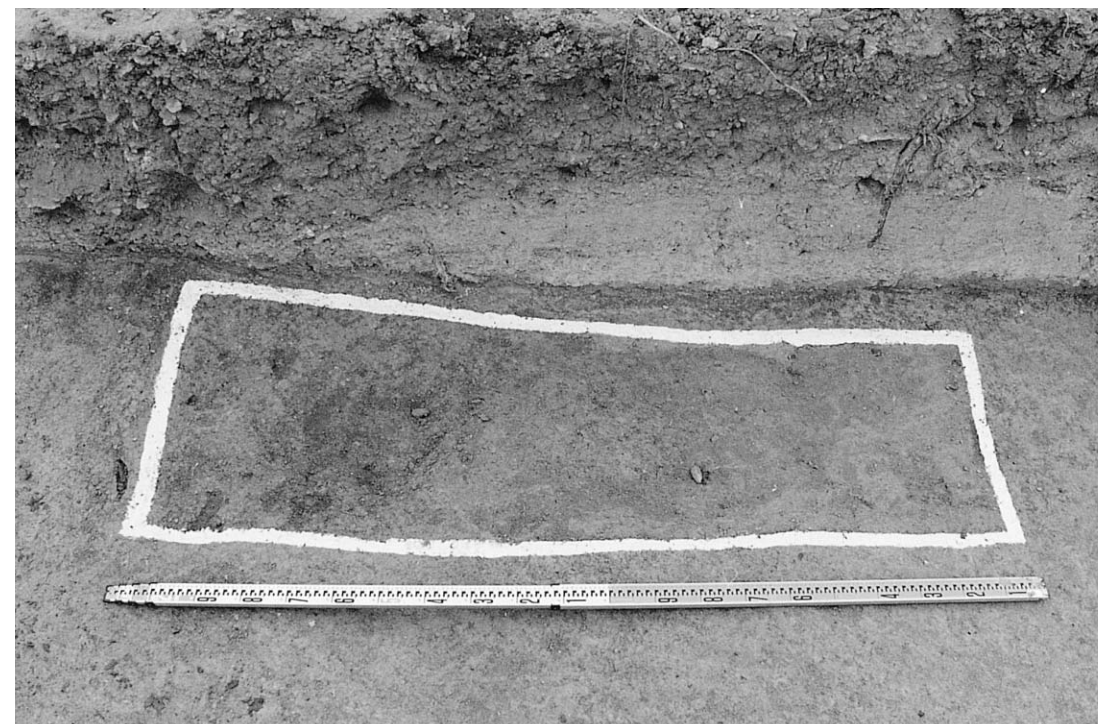


사진 20. II 지점 9트렌치 민묘 노출 모습



사진 21. Ⅱ지점 출토 무문 암키와



사진 23. Ⅱ지점 출토 무문 암키와



사진 22. Ⅱ지점 출토 무문 암키와



사진 24. Ⅱ지점 출토 무문 암키와



사진 25. Ⅱ 지점 출토 방곽문계 암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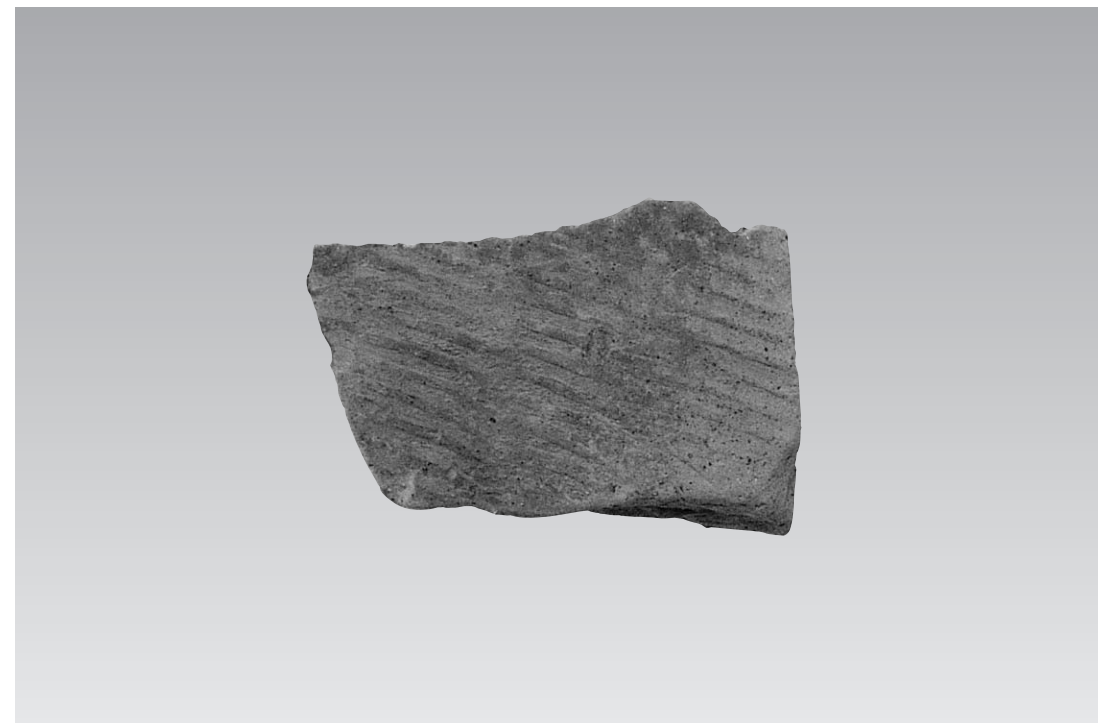


사진 27. Ⅱ 지점 출토 가로선문 암키와



사진 26. Ⅱ 지점 출토 방곽문계 암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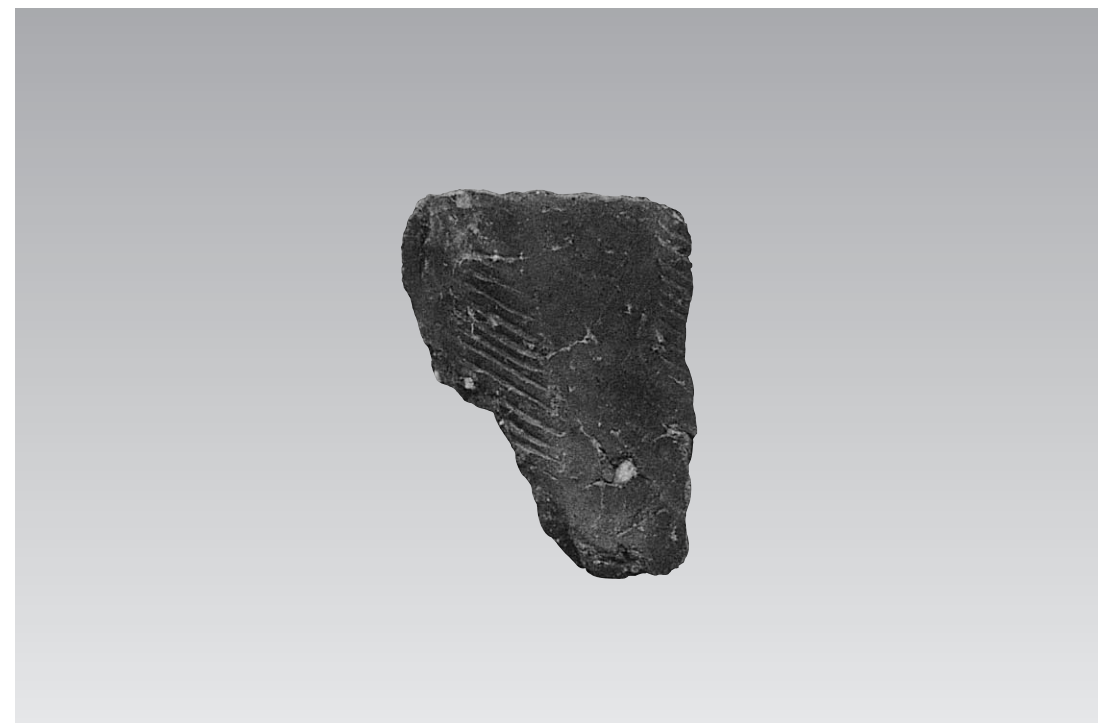


사진 28. Ⅱ 지점 출토 사선문 암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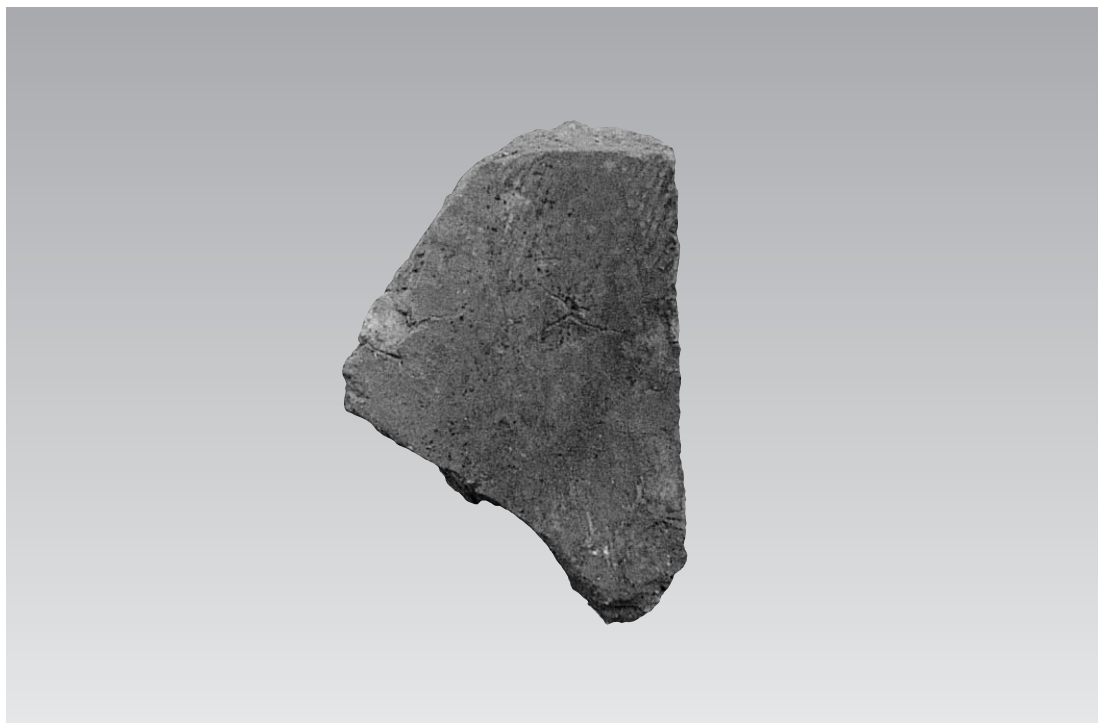


사진 29. Ⅱ 지점 출토 어골문 암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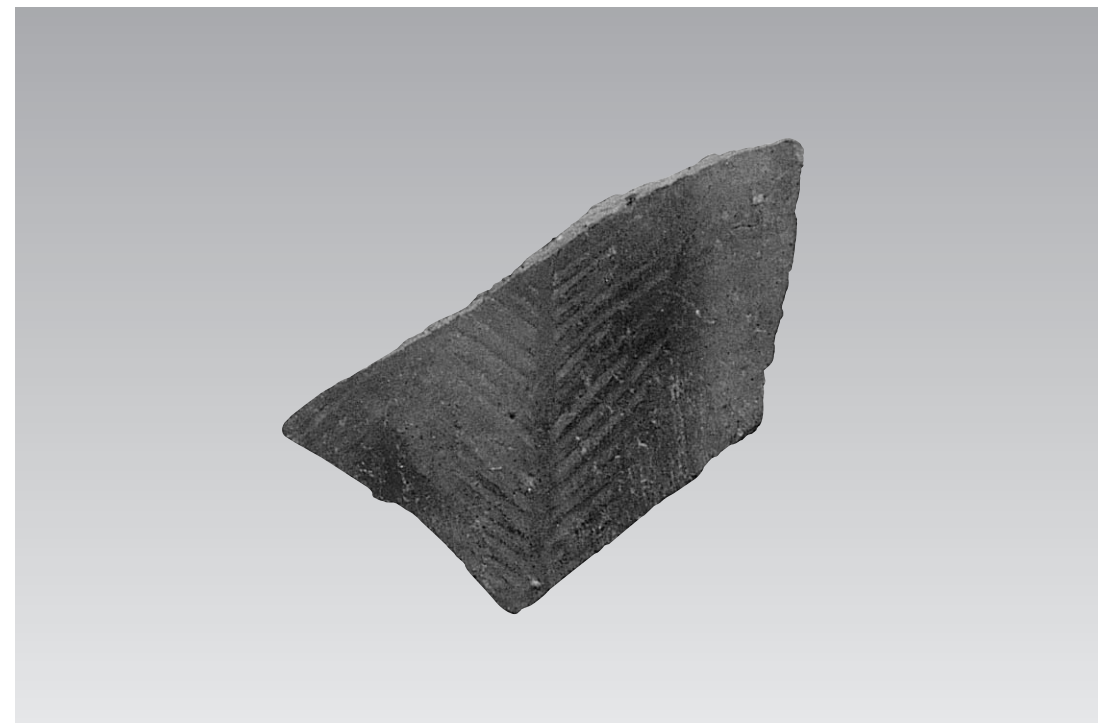


사진 31. Ⅱ 지점 출토 어골문 암키와



사진 30. Ⅱ 지점 출토 어골문 암키와



사진 32. Ⅱ 지점 출토 복합문 암키와



사진 33. Ⅱ 지점 출토 복합문 암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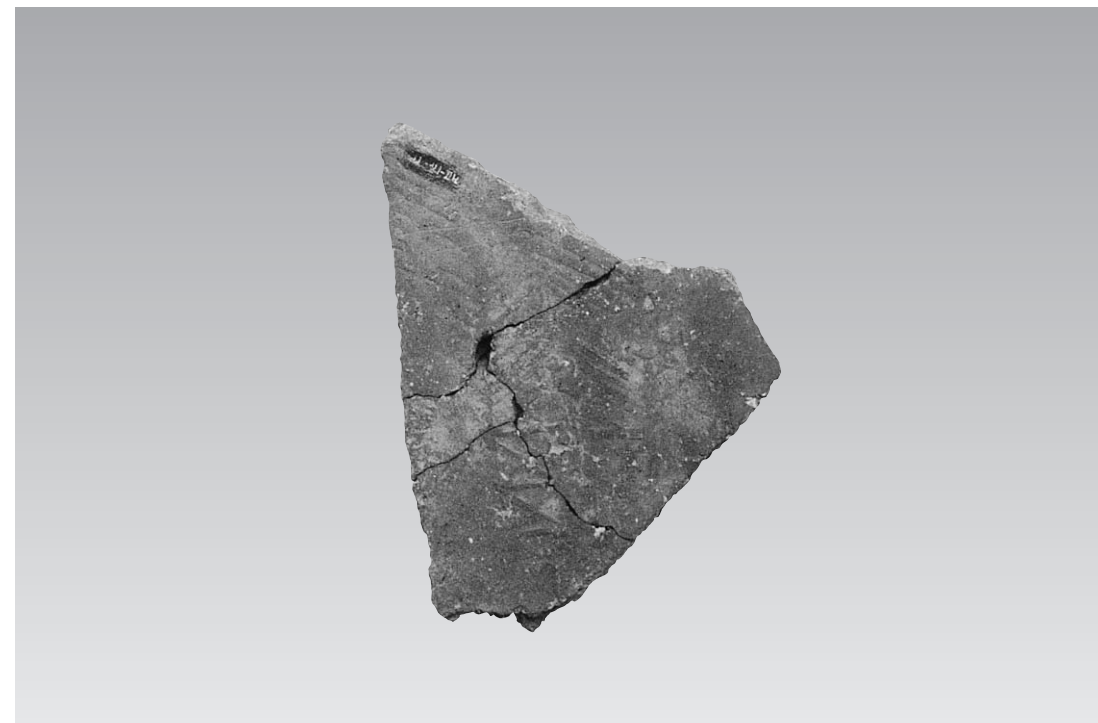


사진 35. Ⅱ 지점 출토 복합문 암키와



사진 34. Ⅱ 지점 출토 복합문 암키와



사진 36. Ⅱ 지점 출토 복합문 암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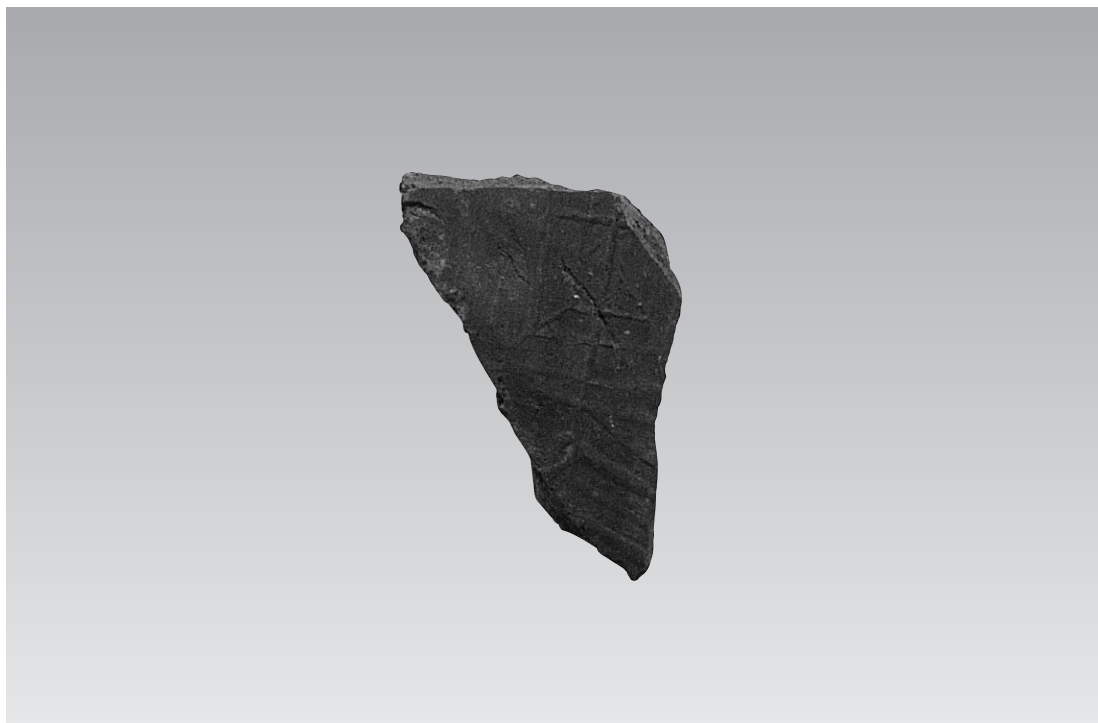


사진 37. Ⅱ지점 출토 복합문 암키와



사진 39. Ⅱ지점 출토 토기 저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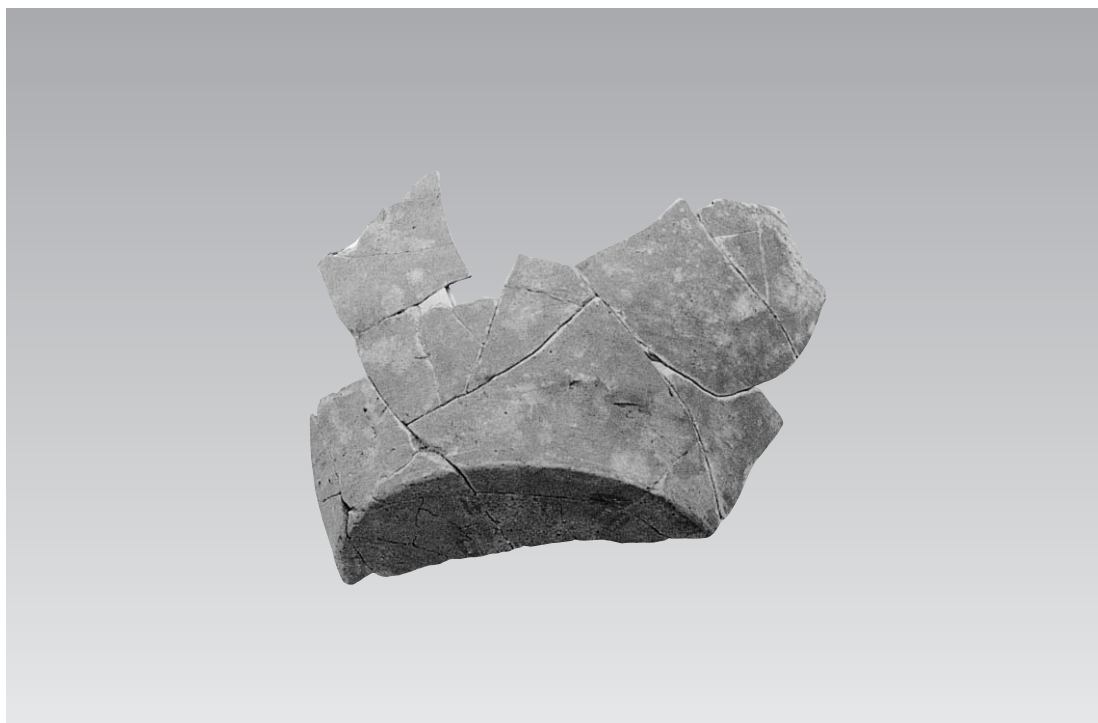


사진 38. Ⅱ지점 출토 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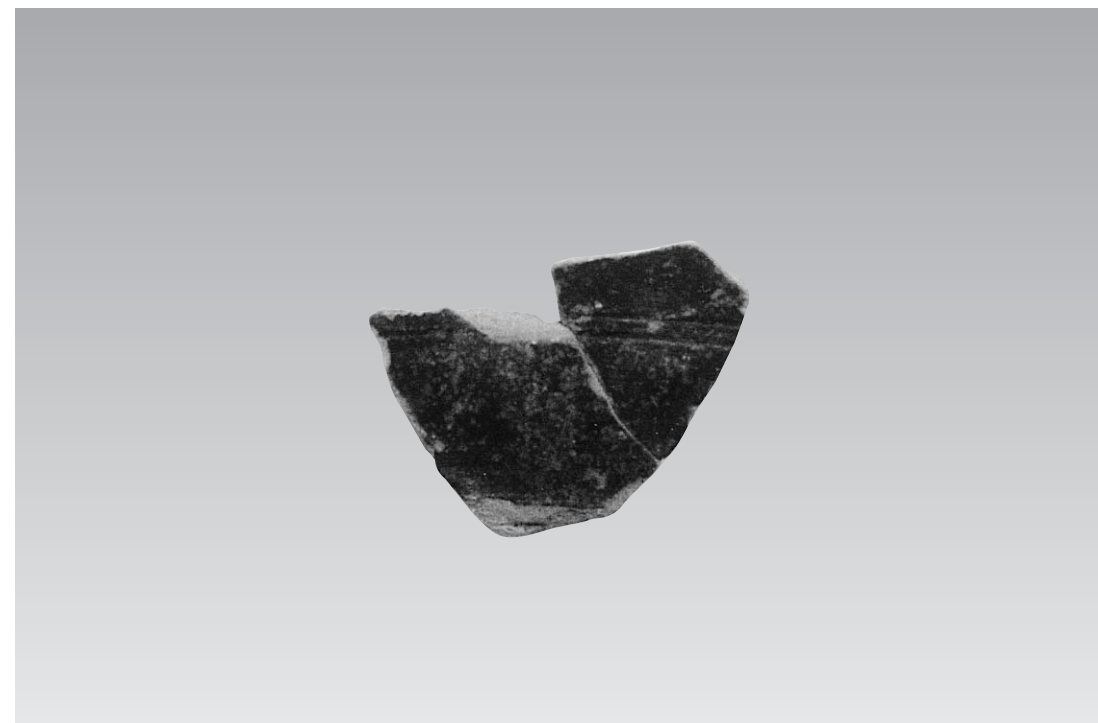


사진 40. Ⅱ지점 출토 토기 동체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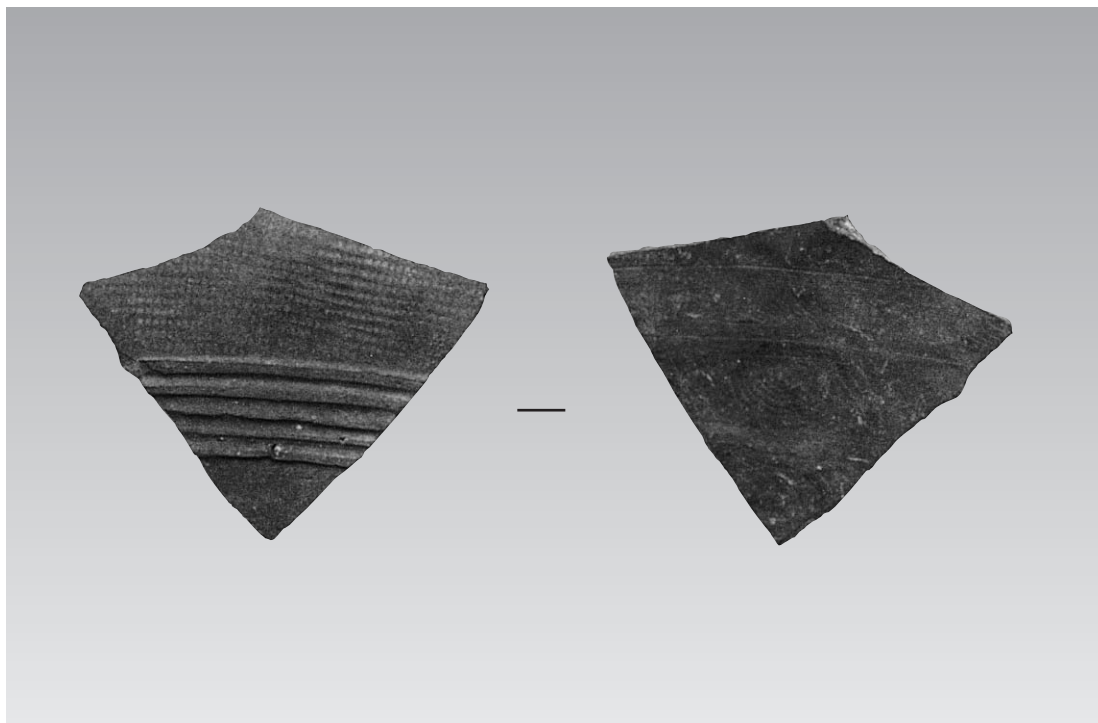


사진 41. Ⅱ 지점 출토 토기 동체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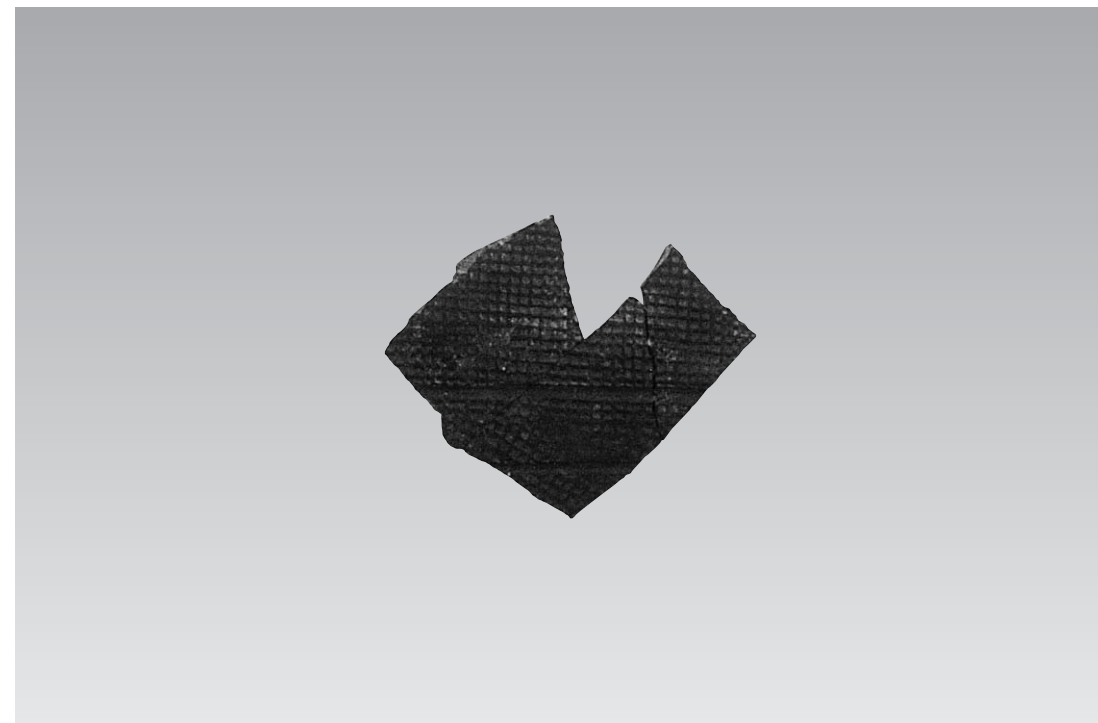


사진 43. Ⅱ 지점 출토 토기 동체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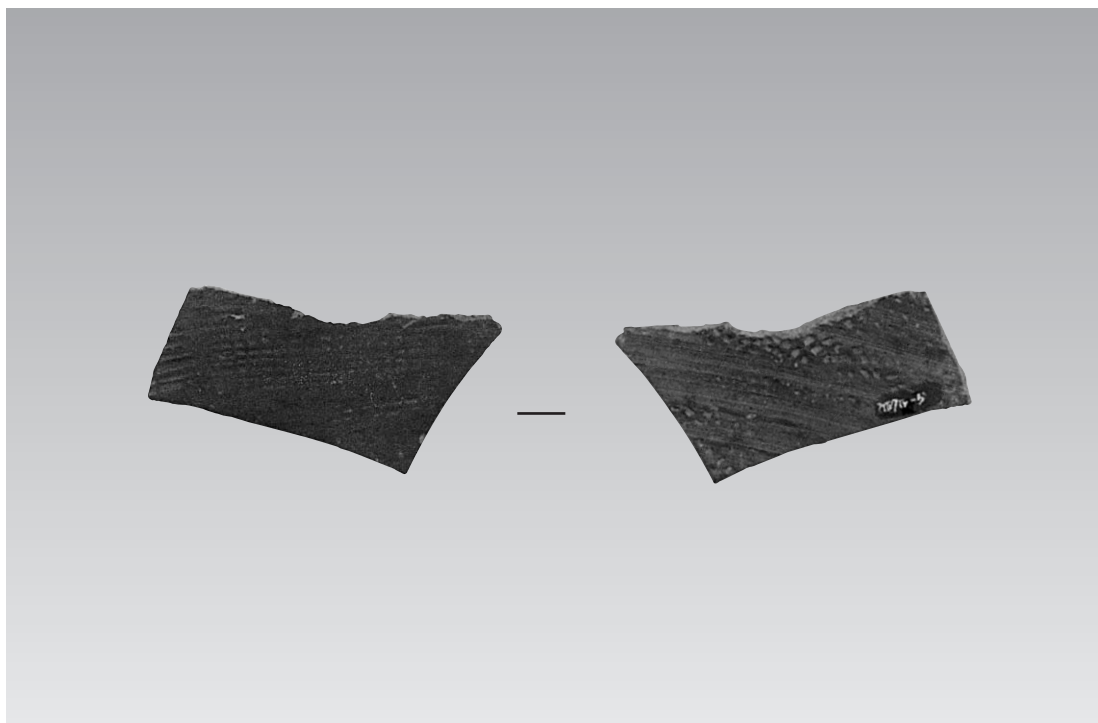


사진 42. Ⅱ 지점 출토 토기 동체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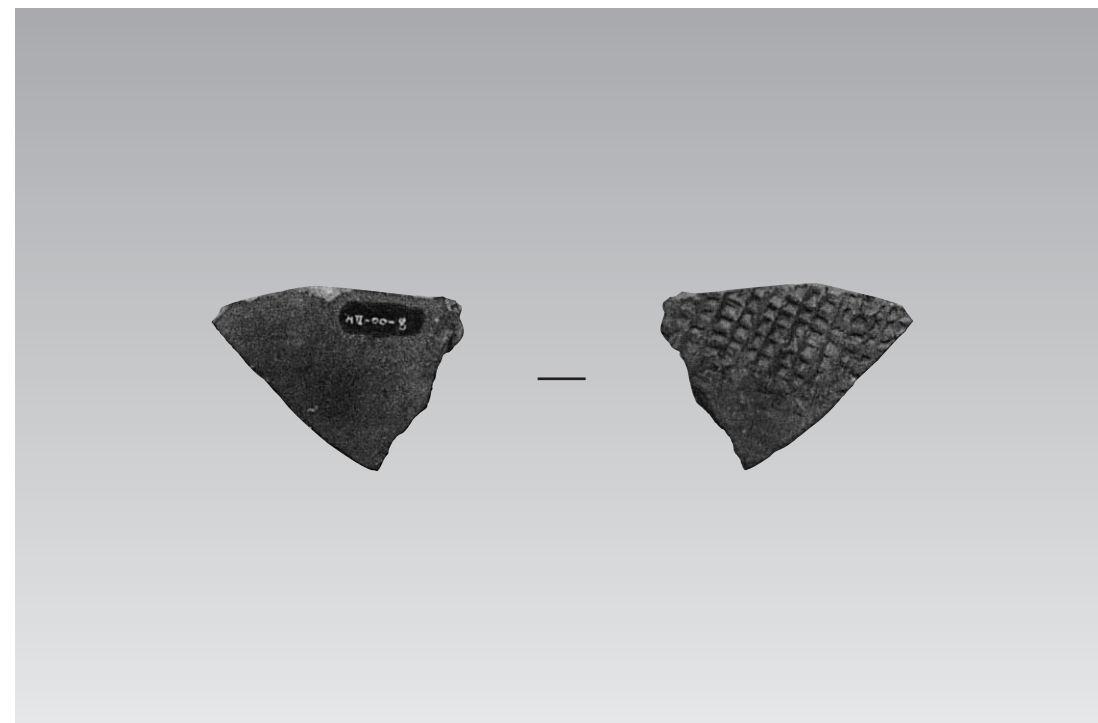


사진 44. Ⅱ 지점 출토 토기 동체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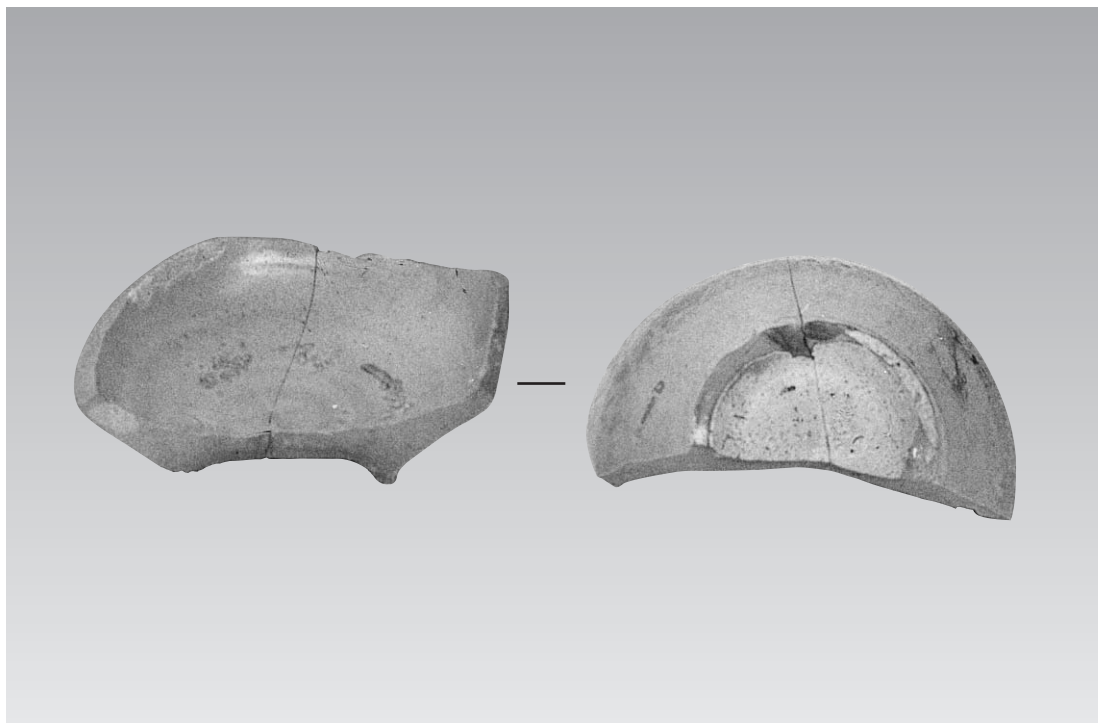


사진 45. Ⅱ 지점 출토 백자 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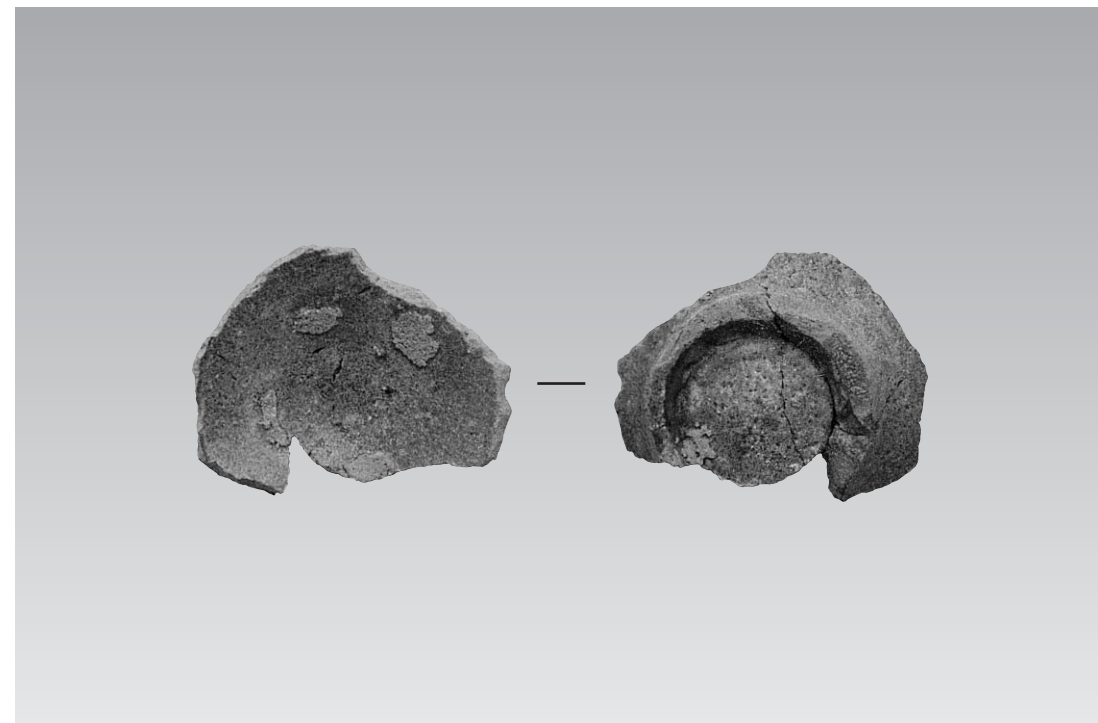


사진 47. Ⅱ 지점 출토 백자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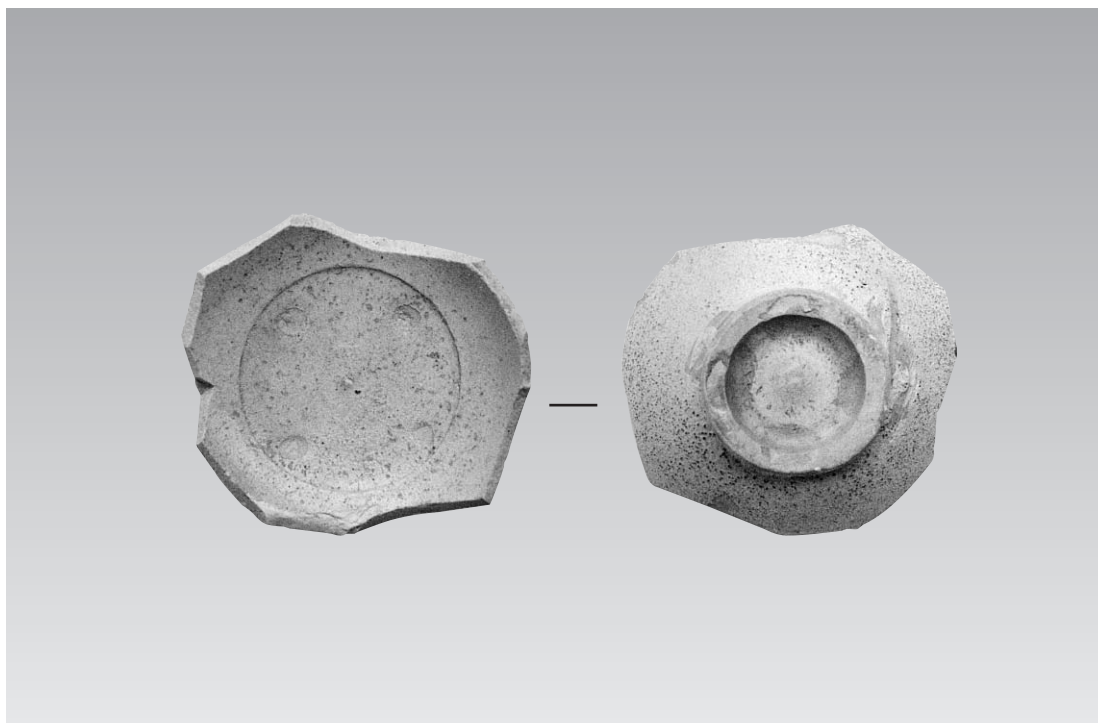


사진 46. Ⅱ 지점 출토 백자 대접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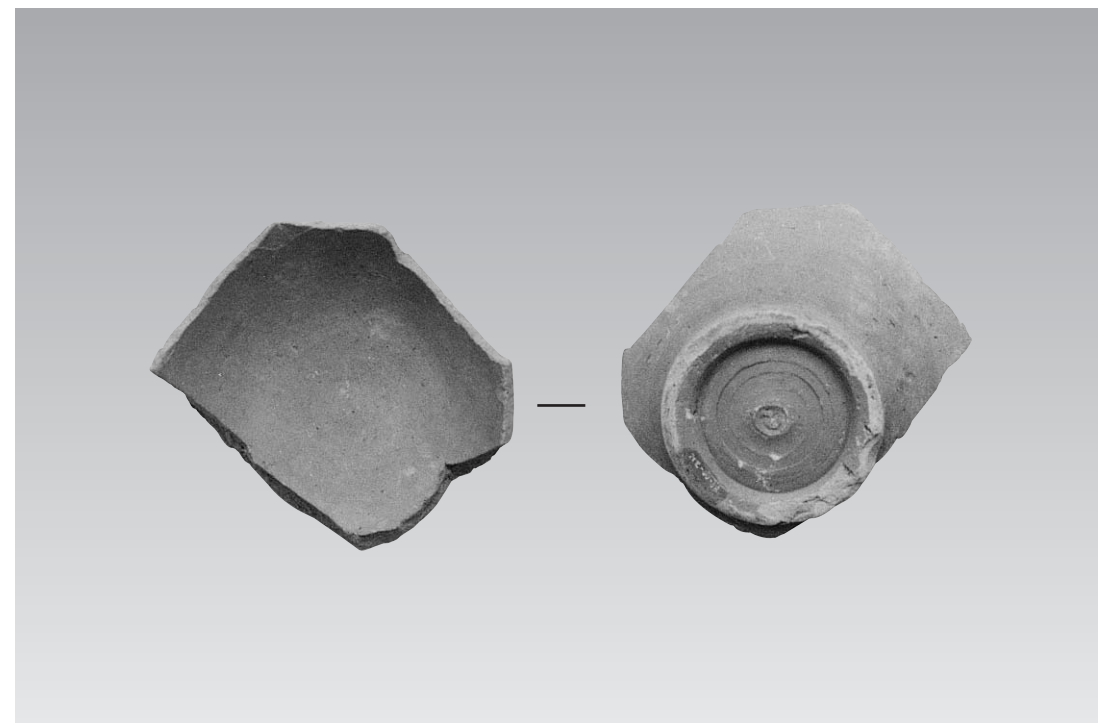


사진 48. Ⅱ 지점 출토 백자 초벌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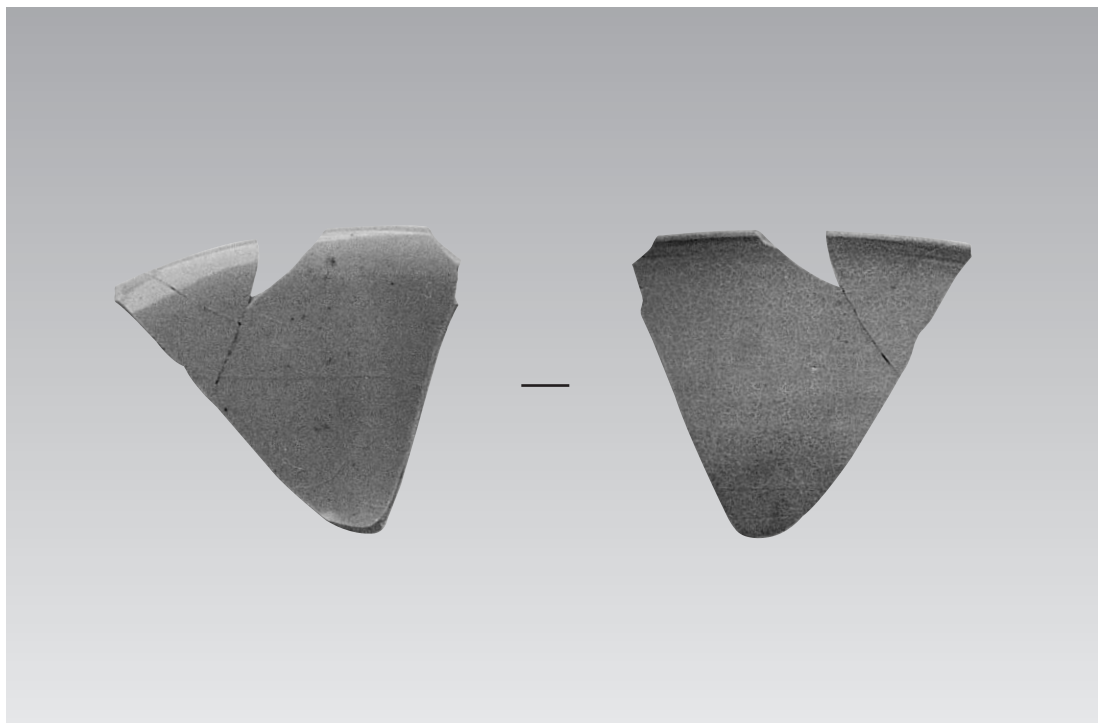


사진 49. Ⅱ 지점 출토 백자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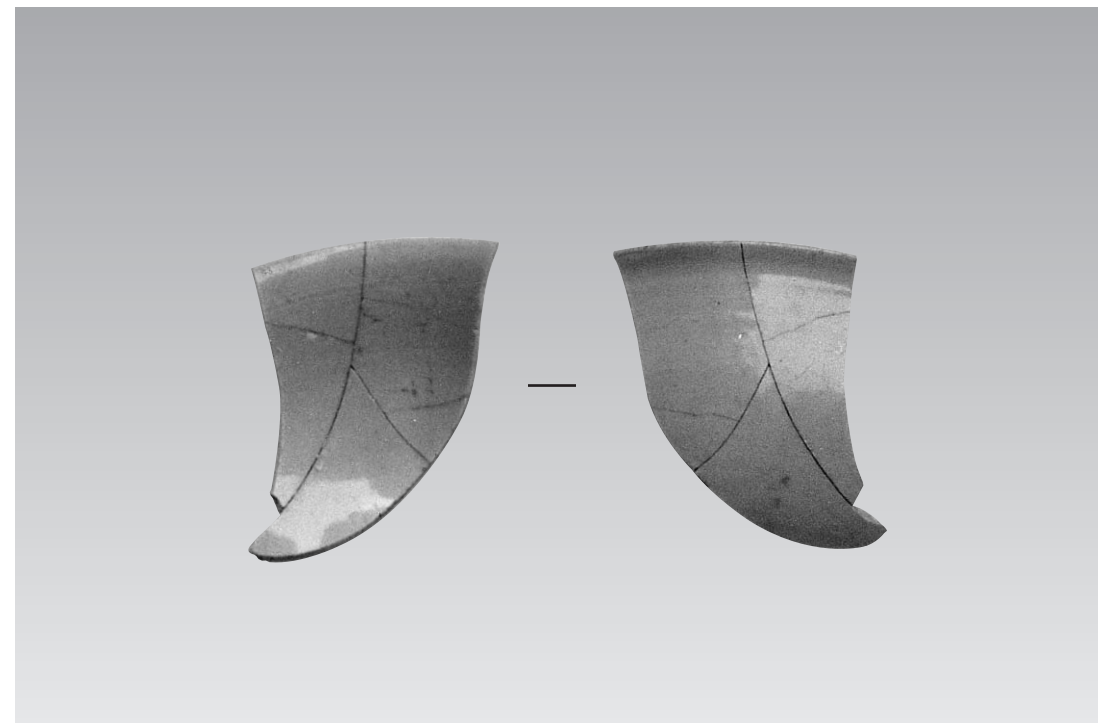


사진 51. Ⅱ 지점 출토 백자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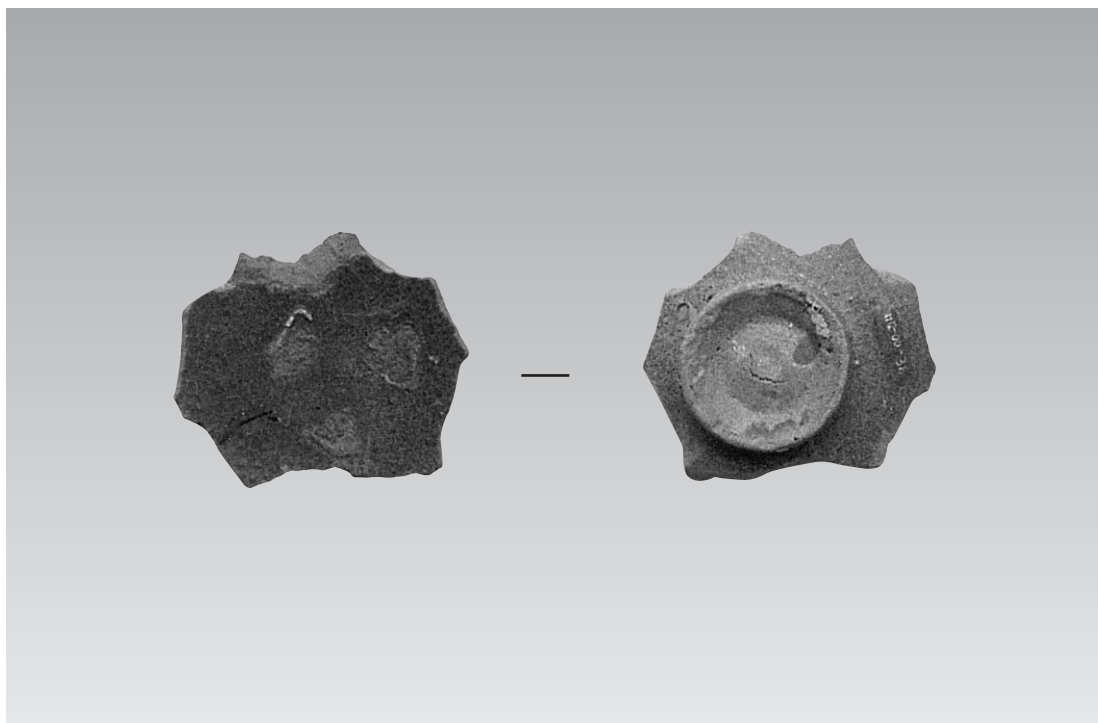


사진 50. Ⅱ 지점 출토 백자 접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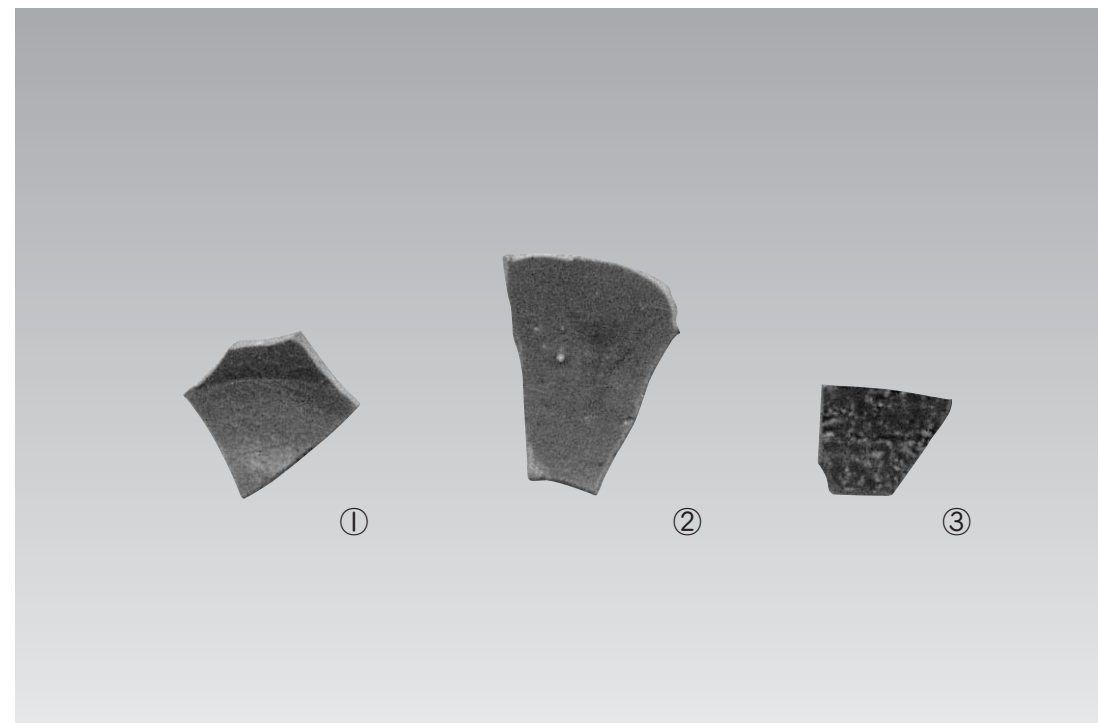


사진 52. Ⅱ 지점 출토 청자편(內面)①~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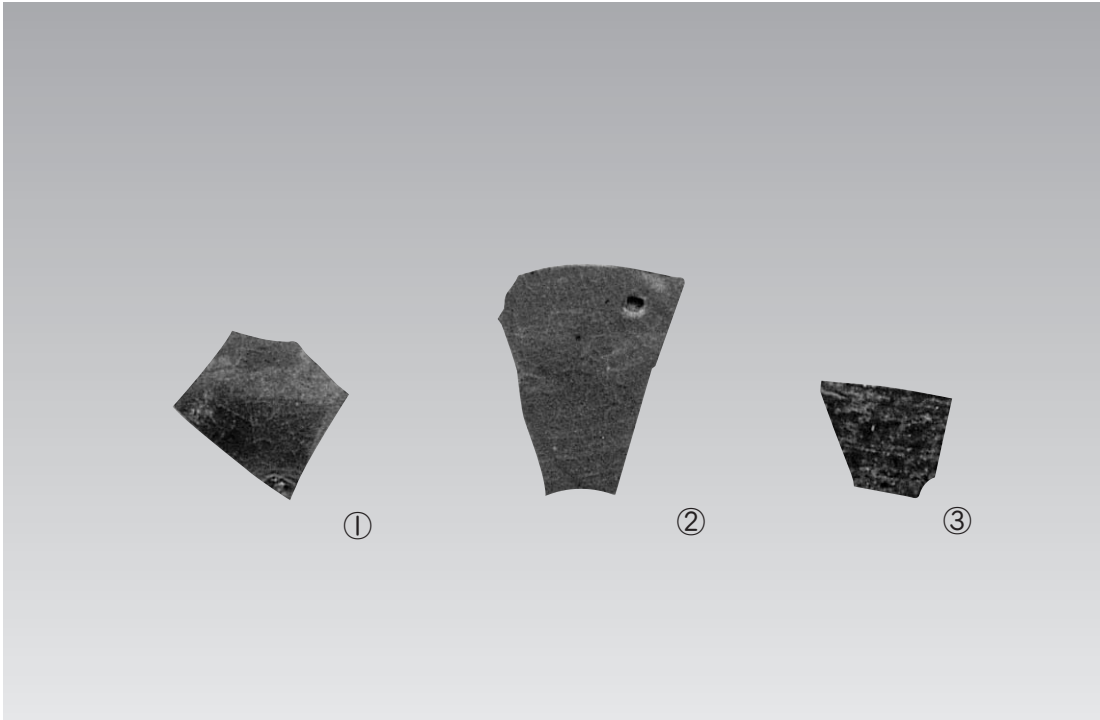


사진 53. Ⅱ 지점 출토 청자편(外面)①~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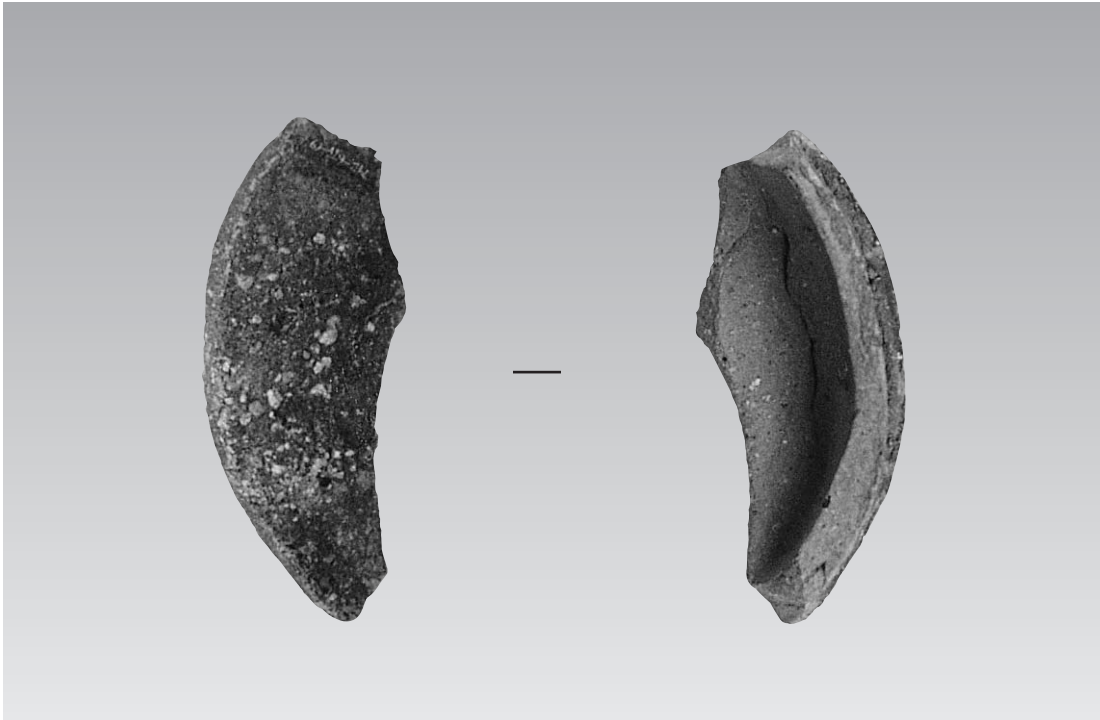


사진 54. Ⅱ 지점 출토 갑발편

調査報告書 抄録

報 告 書 名	시흥 서안산IC 접속부 개량공사구간 내 시굴조사		發 行 日	2001年 5月 30日
發 刊 機 關	名 稱	기전문화재연구원 · 한국도로공사중부지역본부		
	住 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동 2-6		
	T E L	(031) 258 - 5034	FAX	(031)258-7116
執筆・編輯者	김아관, 이동성, 서봉수, 이민식			
調 査 緣 由	서안산IC 접속부 개량공사구간 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여부 결정			
調 査 擔 當 者	김성태, 김아관, 이동성, 서봉수, 이민식			
遺蹟所在地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1596-4 일대			
調 査 面 積	약 5,000평			
遺蹟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 要 遺 物	特 記 事 項
유물산포지	구석기시대		몸돌 외	
건 물 지	고려~조선시대	3기 이상	기와류, 자기류, 토기류	

學術調查報告 16冊
시흥 서안산IC 접속부 개량공사구간 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2001年 5月 30日 印刷 2001年 5月 30日 發行 編輯：畿甸文化財研究院 發行：畿甸文化財研究院 · 韓國道路公社中部地域本部 京畿道 水原市 長安區 長安洞 2-6 ☎ 031)258-5105, fax 031)258-7116
印刷處：京畿出版社 住 所：水原市 八達區 人溪洞 1122-11 ☎ 031)231-5520~7, fax 031)231-5519

(비매품)